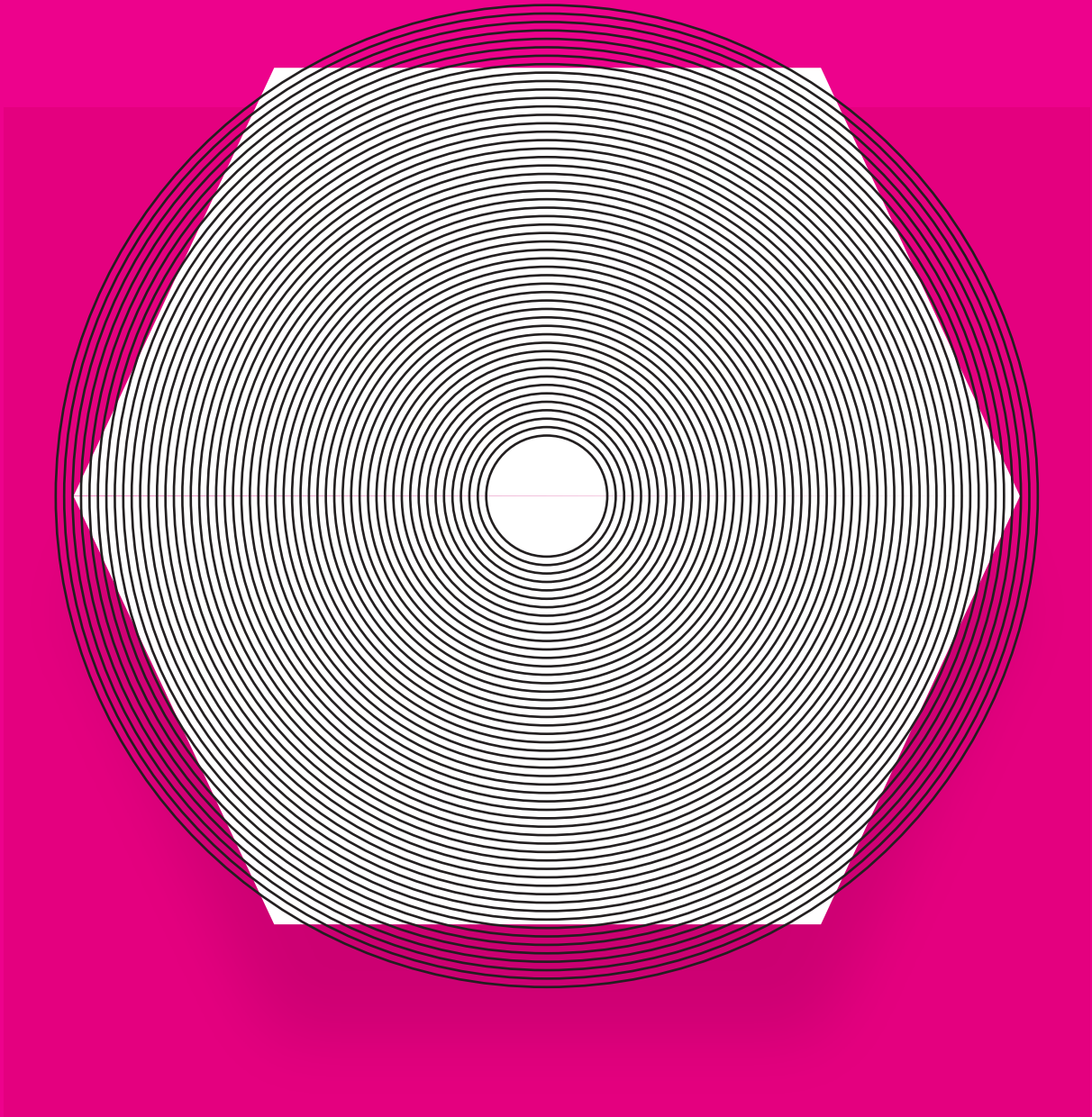


기술
의 _

파급
효과





사회 · 문화
STANDARD
기출의 파급효과

사회 · 문화

PART 1. 개념 파트

Chapter 1. 내용별 선지 정리_10p

Chapter 2. 기출 문제 풀이_41p

1. 자연 현상 vs 사회 · 문화 현상_41p
2.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_44p
3. 사회 ·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_49p
4. 자료 수집 방법_59p
5. 사회화 & 지위와 역할_65p
6.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_71p
7.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_80p
8. 이탈 이론_84p
9. 문화의 의미와 속성_90p
10.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및 문화 이해 태도_96p
11.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_102p
12. 문화 변동_108p
13. 사회 불평등 현상_115p
14. 빈곤 유형_120p
15. 사회 보장 제도_124p
16. 사회 변동 이론_127p
17. 사회 운동_132p
18. 현대 사회의 변화_135p

Chapter 3. 개념 마무리 정리_138p

PART II.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1. 구분 유형_162p

Chapter 2. 개방형 문제 유형_168p

1. 그림 - 부분 확정형_172p

2. 그림 - 완전 개방형_179p

3. 표 유형_183p

Chapter 3. 채점 및 카드 게임 유형_195p

1. 채점 유형_196p

2. 카드 게임 유형_209p

Chapter 4. 옳게 응답한 학생 유형_213p

1. 자신에게 주어진 응답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 찾기_214p

2. 특정 학생이 틀린 응답을 하는 경우_221p

PART III. 표 파트

Chapter 1. 비율과 변화율_228p

Chapter 2. 가중평균_236p

Chapter 3. 인구 부양비_244p

Chapter 4. 사회 보장 제도_261p

1.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_262p

2. 벤 다이어그램 문제_278p

3. 일반 사회 보장 제도 문제_286p

Chapter 5. 계층 이동_295p

1. 2022학년도 출제 유형_297p

2. 2020학년도 이전 출제 유형_306p

Chapter 6. 임금 및 성 불평등_321p

Chapter 7. 양적 연구 결과 분석_331p

Chapter 8. 빈곤 유형_345p

Chapter 9. 기타 표_356p

Chapter 10. 학생들에게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표 문제 유형_361p

1. 발문에서 나오는 대상과 선지에서 나오는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_362p

2.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인지 물어보는 경우_366p

저자의 말

이 책의 대상

이 책은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의 방향성은 수험생이 수능 실전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개념을 1회독 이상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독 이상이란, 단순히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학습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개념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념 1회독 이상은 반드시 마친 상태로 이 책을 보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았으면 하는 주요 대상은 기출 문제집을 한 번 이상 제대로 풀어 본 사람입니다. 기출 문제집을 한 번 풀었거나 실전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의 사람이 이 책으로 공부한다면, 이 책으로 사회·문화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 책만의 특징점

1. 이 책은 사회·문화 문제를 풀 때 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을 실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는 식의 서술에서 벗어나,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2. 이 책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기출 문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실전 개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3. 이 책을 쓸 때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항상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 시중에 이러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형식의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기출 분석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 책에서는 단순히 교과서 단원에 맞춰 순행적으로 문제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체계를 갖춰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이 책에 있는 모든 <보기> 문제는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문제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찍어서 맞추었을 때, 본인이 그 문제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극한 상황에서 실력을 끌어올리도록 만들기에는 <보기>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활용법

1.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수능 사회·문화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적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달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보다 얻어간 지식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와 집요하게 싸워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3. 이 책은 본문 못지않게 해설도 중요합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해설은 저자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풀고 본인의 풀이와 해설을 비교한다면, 문제만 푸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나열된 선지의 내용을 모두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몰랐던 내용에 표시하면서 회독할 때 모르는 것 위주로 선지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수능 사회·문화의 기조는 매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까지 이 책으로 전반적인 학습을 하고,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을 반드시 분석하길 바랍니다. 기출된 문제와 당해 시행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조화롭게 분석하면 충분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급의 기출효과



cafe.naver.com/spreadeffect
파급의 기출효과 NAVER 카페

기출의 파급효과 시리즈는 기출 분석서입니다. 기출의 파급효과 시리즈는 국어, 수학, 영어,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사회·문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킬러 이상 기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를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 체화를 위해 관련도가 높은 준킬러 이상 기출을 바로바로 보여주며 체화 속도를 높입니다. 단시간 내에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재가 설계되었습니다.

학습하시다 질문이 생기신다면 '파급의 기출효과' 카페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 인증을 하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의 파급효과 팀 소속 오르비 저자분들이 올리시는 학습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저자 분들의 컨텐츠 질문 답변도 교재 인증 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1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I

개념 파트

❖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comment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의 주어가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 물론, 주어는 밑줄 친 부분에 없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서술어의 생략된 주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만 하지 말자.

(1)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

-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2) 자연 현상의 특징

-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 사문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사문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 사문 현상에 비해 예측이 용이하다.
- 몰가치적이다.
- 동일 조건하에서 동일 현상이 발생한다.

(3)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 가치 함축적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comment

- 1) 상호(기, 상), 합의(기, 갈)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관점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단어가 아닌 문맥 위주로 제시문과 선지를 보아야 한다.
- 2) 비판에 관한 선지가 나오면 어느 관점이 어느 관점을 비판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1) 거시적 관점

-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강조한다.
-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한다.

1-1) 기능론

- 사회의 부분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사회를 유지시킨다.
-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합의된 가치가 존재한다.
-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 집단 생활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동질성을 강화하여 사회를 존속시킨다.
-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주목한다.
-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가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이룬다고 본다.
-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역할 수행 체계가 무너지고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면 세대 갈등이 발생한다.
-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2) 갈등론

- 한 사회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 사회 구조나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 사회화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 사회의 변동을 중시한다.
-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

(2) 상징적 상호 작용론 - 미시적 관점

- 인간의 능동적 사고와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의미와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가정한다.
- 상황 정의를 매개로 한 인간 관계에 주목한다.
-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부여를 중시한다.
-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
- 사회 규범은 대다수 구성원이 특정 행위에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된다.
- 사회 구성원들이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
-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 세계를 중시한다.

(3)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모두의 공통점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1) 양적 연구 방법

- 사회·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 행위 주체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가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성을 분석한다.
- 주로 연역적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 연구 대상자의 동기나 의도를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본다.
-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집단, 표본 집단의 표현이 주로 등장한다.
cf. 실험-통제 집단은 실험법에만 해당
-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가 용이하다.
-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을 수 있다. (질적 연구에도 해당하는 선지)
- 연구 대상의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여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 연구 주제 설정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가설 설정에서 가설 검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연역적 과정이고, 자료 수집에서 결론 도출로 이어지는 과정은 귀납적 과정이다.
- 양적 연구 과정 : 주제 설정 → 선행 연구 검토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 일반화

(2) 질적 연구 방법

-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인식 주체에 의해 다르게 규정된다.
- 직관적 통찰을 통해 주로 인간 행위 자체보다 인간 행위의 이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한다.
-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
-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양적 연구에 비해 낮다.
-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한다.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1차 vs 2차	1차 자료를 얻는 데 사용된다.				2차 자료
양적 vs 질적	주로 양적 자료		주로 질적 자료		둘 다
실제성 높은 순서	3	4	2	1	
자료 수집 통제 순서	2	1	3	4	

<15학년도 9월 평가원>

-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하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조사 대상자의 동의 확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는 연구 윤리의 문제이다.
-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유리하다.

<15학년도 수능>

-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 질문지법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에 사용된다.
-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16학년도 6월 평가원>

- 참여 관찰법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통제가 어렵다.
- 문헌 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다.

<16학년도 9월 평가원>

- 실험법은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 문헌 연구법은 기존 연구의 경향성 파악에 용이하다.
-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17학년도 수능>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비해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18학년도 6월 평가원>

- 자료 수집 방법 모두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과 연구자 간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해석해야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8학년도 수능〉

-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한다.

〈19학년도 6월 평가원〉

-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 면접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19학년도 수능〉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20학년도 9월 평가원〉

-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계량화가 용이하다.
-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참여 관찰법은 자료의 실제성이 가장 높다.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에 불리하다.
-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참여 관찰법은 면접법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20학년도 수능〉

-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21학년도 수능〉

-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다. (정답률 18%)

❖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

(1)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

1) 객관적 태도 :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 사회·문화 현상에 관련한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현상이 가진 사실에만 근거하여 파악해야 한다.
- 연구자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치와 편견을 배제하려는 태도이다.
-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이다.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2) 상대주의적 태도 : 상대방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3) 개방적 태도 :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 연구자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성찰적 태도 :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구자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
- 사회·문화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 연구 대상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 연구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조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다.
-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에 대해 미리 알리는 게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후 설명이 가능함)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았다.
- 연구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였다.
-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 수집을 하였다.
- 자료 분석 단계에서 고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 결과 발표 단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하여 발표하였다.
- 연구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자료를 왜곡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
- 자료를 분석할 때 연구자가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았다.
- 자료 분석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졌다.
-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 사생활 관련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
-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 연구 결과 발표 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다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 사회화 & 지위와 역할

(1) 1차적 사회화 기관 :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 가족, 또래 집단

(2) 2차적 사회화 기관 : 전문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 대학, 난민 지원 센터, 신문, 산업체, 방송사, 직업 훈련소, 야간 대학, 축구 협회, 기업, 미술 대학, 회사, 교육 연수원, 요리 학원, 공연 관람 동아리, 대학 연극학과, 청소년 수련원, 건축학과, 인터넷 쇼핑몰, 연기 학원, 증권사, 의과 대학, 기관 연수원, 영화 제작사, 예술 대학원, 광고 회사

(3) 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대학, 직업 훈련소, 야간 대학, 미술 대학, 교육 연수원, 요리 학원, 대학 연극학과, 청소년 수련원, 건축학과, 연기 학원, 의과 대학, 기관 연수원, 예술 대학원

(4)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난민 지원 센터, 신문, 가족, 산업체, 방송사, 축구 협회, 기업, 회사, 공연 관람 동아리, 인터넷 쇼핑몰, 증권사, 또래 집단, 영화 제작사, 광고 회사

(5)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 (영화 배우의 배역 → 지위 X - 2009)

1) 귀속 지위

- 막내딸, 연예인 2세, 아들, 청소년

2) 성취 지위

- 자원봉사자, 아버지, 감독, 남편, 최고령 사원, 직장 동료, 화가, 담임 교사, 연극 배우, 영화제 집행 위원장, 가수, 영화배우

(6) 역할 갈등 O, X 사례 (지위에 따른 역할과 역할 간의 갈등이어야 함)

1) 역할 갈등 O 사례

- 막내딸의 면접일과 부부 동반 해외여행 기간이 겹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부부로서 설거지를 같이 하는 남편의 역할과 설거지를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역할 간 갈등
- 교사로서 받는 교육연수원에서의 연수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입원으로 인해 연수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간 내적 갈등
-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자 영화 출연 배우로서 독립 영화제의 홍보에 힘쓰지, 영화의 홍보에 힘쓰지 고민

2) 역할 갈등 X 사례

- 갑은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것인지,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
-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음
- 향후 거취를 고민하던 갑은~
- 방송 출연을 원했던 남편과 달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갑이 겪는 남편과의 갈등
-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
-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갑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복잡함
- 갑은 부모가 미술 대학 진학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양학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 진로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하였다.
-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남편과 갈등을 빚음
- 요리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요리 학원을 다니지만 아내의 반대로 학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 중임
-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출연 제의를 받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중임
- 가수를 그만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배우로 전향해야 할지 고민 중임
-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장의 아들로서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부모님께 어떻게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중임
- 외국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까 봐 고민 중임
- 사범 대학을 계속 다닐지 말지 거듭 고민 중임
- 철학자 갑이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음
- 배역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촬영이 끝난 후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 중임
- 자신의 퇴직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 중임

※ 내집단 : 현재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있는 집단

※ 사회 집단 :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함

※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 내집단 : 해당하는 주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그의 부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

※ 역할에 대한 보상(제재)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제재)이 맞는 말임.

-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제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예기 사회화, 재사회화에 밀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사례가 정말로 사회화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 팀장 진급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팀장 연수는 재사회화이면서 예기 사회화임
- 예비 부모 교실과 신입 사원 연수는 예기 사회화임
- TV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재사회화가 아님
- 혼자서 사색하는 것은 예기 사회화가 아님
- 여러 분야의 서적을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은 재사회화로 보기 어려움
- 소방공무원 채용은 예기 사회화가 아님

❖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1)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

1) 공동 사회

-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구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 공식 조직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2) 이익 사회

-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할 때,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의해 결합한 집단이다.
-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은 모두 이익 사회로 볼 수 있다.
-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이다.

(2) 친밀감에 따른 분류

3) 1차 집단

-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 구성원 간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이다.
- 1차 집단에서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이다.
- 비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이다.

4) 2차 집단

- 형식적,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 구성원 간 수단적 만남과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 과업 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 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모든 2차 집단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5) 자발적 결사체

- 선택 의지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자발적인 동기로 결합된 집단이다.
-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집단이다.
-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 사회 다원화에 기여한다.

6) 공식 조직

- 공식적인 목표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다.
-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가 적용된다.
- 비공식 조직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이질적이다.
- 비공식 조직에 비해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 통제의 정도가 강하다.
- 과업 달성을 위한 조직이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원리가 적용된다.
- 기업의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공식적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한 조직이다.
-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이다.
-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과업 지향적인 집단이다.
-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이다.
-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조직이다.

7) 비공식 조직

- 사익을 추구한다.
-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취미, 관심사 등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다.
-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 공식 집단을 기반으로 출현하여, 공식 조직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이다.
- 과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만 존재하며,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파벌을 조성하는 역기능도 있다.
-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8) 관료제 vs 탈관료제

- 관료제는 조직의 운영에서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 관료제는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표준화된 업무 처리 방식을 통해 안정된 조직을 운영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담당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쉽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 간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업무 부서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체시킨다.
- 탈관료제는 경력보다 업무 성과를 고려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한다.
- 탈관료제는 의사 결정 권한의 집중보다 분산을 지향한다.
- 탈관료제는 규약에 따른 과업 수행보다 창의적 과업 수행을 중시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향식 의사 결정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더 중시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결정권이 분산되어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더 용이하다.

9)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한다.
-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 실재론

- 개인 행위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찾는다.
-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본다.
- 사회 속의 개인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본다.
-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
- 개인은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 사회가 개인의 총합 이상이라고 본다.
-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도 발전한다고 본다.
-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제도의 개혁을 중시한다.
-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중시한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변화보다 제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 사회 현상은 순수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논리를 찾아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
-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 사회 정책으로 인간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찾는다.
- 사회 구조가 개인에 대하여 불가항력적 존재라고 본다.
-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 그 이상으로 본다.
-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없다.
- 조직의 규모는 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고, 개인은 이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각 개인의 자유 의지는 집단 규범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발현된다.
-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개인의 행위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회 구조적 상황의 산물이다.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본다.
-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 제도의 힘을 중시한다.
-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 개인은 오직 사회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 사회 현상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2) 사회 명목론

- 개인의 능동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합의하여 만든 것이 사회이다.
-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을 중시한다.
- 사회를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 사회에 대해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 사회 구조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집합한 결과라는 점을 전제한다.
-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규정하는 근원적인 규범이 존재함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 사회도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복잡한 현상도 개별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다.
-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 사회는 개인의 속성에 의해 그 속성이 결정된다.
- 사회의 특성은 개인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이다.
- 집단 행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표출된다.
- 개인의 정신 상태가 유일하게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된다.
-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연구해야 한다.
- 사회는 개인의 속성을 모두 합한 것에 불과하다.
- 사회적 조건보다 개인의 자유 의지가 인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사회는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 작용의 총합과 동일시된다.
- 사회란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된 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일 뿐이다.
- 사회로부터의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위나 심리 상태로 환원된다.
-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일탈 이론

comment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분하도록 하자.

(1)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사회 규범의 부재를 강조한다.
-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하여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급격한 사회 변동과 전통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일탈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3) 차별 교제 이론

- 차별적 교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일탈 행동이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 일탈 행동의 발생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 단지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와 태도까지 내면화하게 된다.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강조한다.

(4) 낙인 이론

-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주목한다.
- 지속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 자아상이 새롭게 바뀐 상습 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중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일탈 행동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일탈자가 되어 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 최초의 일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초래한다고 본다.
-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춘다.
- 규범을 위반한 행동이 모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5)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 문화의 의미와 속성

(1) 문화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문화 : 발전되고 세련된 것처럼 특정 의미만 나타냄,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내포

- 문화 시설, 문화인

2) 넓은 의미의 문화 : 생활 양식의 전체를 의미함

- 장례 문화, 음식 문화, 혼인 문화, 인사 문화, 이민자 집단의 문화, 건축 문화, 문화적 환경, 청소년의 언어 문화, 대중문화

(2) 문화의 구성 요소

1) 물질문화

-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이나 도구에 해당하는 문화 요소이다.
- 문화 요소 중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에 해당한다.
- 빨간 김치, 요리, 기술, 정보 통신 기술, 편집 기술

2) 비물질문화

- 사회 구성원이 지닌 태도나 신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 요소에 해당한다.
- 제도문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문화 요소
- 고인의 가족과 화해하는 의식, 인사법, 주술, 음악, 예술, 은어와 속어, 법 제도

(3) 문화의 속성

1) 공유성 →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제시하면 대부분 공유성이 존재함

- 문화는 구성원 간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해 준다.
-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향유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 준다.
- 문화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문화는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게 한다.
-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면 어색함을 느낄 것이다.
-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게 해준다.
-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무더기 탑을 지날 때 돌 하나를 얻는 이유를 외국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단어의 처음절만을 이용하여 만든 줄임말의 의미를 기성세대는 알지 못한다.'
- '우리나라 청소년 특유의 언어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 간 이해 양상의 차이'
-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김치를 찾는다.'
- "노약자석에 앉아도 임신부 카드 덕분에 오해받지 않겠네."

2) 학습성

-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 문화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됨을 보여 준다.
-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사고방식 차이 비교’
- ‘결혼 이주 여성의 거주 지역별 사투리 사용 실태’
- ‘어릴 때부터 우리 입맛이 김치에 익숙해졌기 때문’
-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 재외동포 2세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례

3) 축적성

- 문화는 경험과 상징을 통해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다.
-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 후대에 문화가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짐을 보여 준다.
- 문화는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계승된다.
- 전승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다.
-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이 복잡해지고 풍부해진 과정’

4) 전체성(총체성)

- 문화는 부분들이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 하나의 전체 속에서 다른 것들과 관련을 맺으며 존재한다.
-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인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이다.
-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화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연쇄적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 ‘~ 관련이 깊다’
- ‘조선 시대의 음식에 영향을 준 당시의 유교 문화와 농경 문화’

5) 변동성

- 문화는 기존 요소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지며 변화한다.
-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하기도 한다.
- 기존의 문화 요소가 소멸하거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기도 함을 보여 준다.
- 문화는 정적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지속해서 발전하거나 퇴보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보여 준다.
-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변화함을 보여 준다.
-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내가 임신했을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게 생겼네.”
- ‘김치를 담그는 데 고춧가루가 양념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김치를 먹게 되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및 문화 이해 태도

(1)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1) 총체론적 관점

-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 특정 문화 요소를 그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자연 환경, 관습, 정치 제도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연구
- 문화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2) 비교론적 관점

- 여러 문화를 비교하면서 공유되는 보편성을 파악해야 한다.
- 보편적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 현상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
-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3) 상대론적 관점

-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2) 문화 이해 태도

1) 문화 사대주의

- 다른 문화를 우월하게 보며 자기 문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 타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 수용적이다.
- 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풍조
-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2) 자문화 중심주의

- 자기 문화의 관점을 내세워 다른 문화가 지닌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 자기 문화의 주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외국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
-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
-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당연시한다(정당화한다).
- 자문화와 다른 사회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문화 상대주의 (상대론적 관점)

- 해당 문화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 문화의 다양성 신장을 위해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 외국의 특정 음식에 대해 거부감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
-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 문화를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파악한다.
-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는 태도

4)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공통점

-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위문화와 대중문화

(1) 하위문화

1) 주류(전체) 문화의 특징

-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기도 한다.
-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이다.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2) 하위문화의 특징 (반문화+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 전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는 생활양식
-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전체 문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 사회 변화에 따라 전체 문화가 되기도 한다.
- 하위문화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 사회 변동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한 사회에서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전체 문화와 다른 독특한 가치와 규범을 갖기도 한다.
- 하위문화는 전체 문화와 공존이 가능하다.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 전체 문화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3) 반문화의 특징

- 하위문화 중에서 지배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이다.
- 기존 문화에 저항하는 특징을 보인다.
-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2) 대중 매체의 유형

- ① 대중 매체의 등장 순서: 인쇄 매체 → 음성 매체 → 영상 매체 → 뉴미디어
- ② 정보 전달의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대중 매체(제공): 인쇄 매체
- ③ 정보 수용의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대중 매체(소비): 인쇄 매체, 뉴미디어
- ④ 청각 정보가 없는 매체: 인쇄 매체 / 시각 정보가 없는 매체: 음성 매체
- ⑤ 전통적 대중 매체: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1) 인쇄 매체 (잡지, 책, 서적)

-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 정보의 심층성이 가장 높다.
-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가장 낮다.
- 문맹자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크다.

2) 음성 매체 (라디오)

-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 청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3) 영상 매체 (TV)

-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다.
-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동시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
- 인쇄 매체에 비해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 인쇄 매체보다 생동감 있는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
-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나타난다.
-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 정보에 대한 문맹자의 접근 가능성이 인쇄 매체에 비해 높다.

4) 뉴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SNS)

- 정보 수용자도 정보를 생산한다.
- 인쇄 매체에 비해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 작용성이 뛰어나다.
- 다른 대중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이 높다.
- 영상 매체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이 높다.
- 다른 대중 매체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 영상 매체에 비해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높다.
-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 정보 전달의 속도가 인쇄 매체에 비해 높다.
-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영향력이 가장 높다.
- 정보 획득 시 사용 가능한 감각의 다양성이 인쇄 매체에 비해 크다.
- 정보 사회에서 지배적인 매체이다.
-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가장 낮다.

13. 문화 변동

(1) 문화 변동의 요인 - 모두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1) 내재적 요인

1-1) 발명

-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국 내 지식 보급에 기여한 사례
- 한글을 창제하여 비로소 우리 고유의 글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 전통적으로 계승된 온돌의 원리를 활용하여 현대식 바닥 난방 장치를 만든 것
-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었다.
-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자국의 첨단 매체 발달에 기여한 사례
-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창조된다.

1-2) 발견

- 말안장 밑에 고기 조각을 넣고 말을 달리면 말안장의 충격으로 고기가 부드럽게 다져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문화 요소를 찾아낸 것이다.

2) 외재적 요인

2-1) 직접 전파

- 이주민에 의한 문화 전파
-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에 한자가 전래되었다.
- A국 왕실이 주도한 정략혼인을 통해 A국 왕실 문화가 B국 왕실로 전래되었다.
- 사람들의 왕래
- 자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 이웃 나라의 특정 음료가 교역을 통해 들어왔다.
-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오면서 크루아상이 프랑스에 널리 전해졌다.

2-2) 간접 전파

- 한국의 대중 음악이 인터넷을 통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난 사례
- 문화 요소의 전달이 매개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람 이외의 매체에 의해 문화 요소가 전달된다.

2-3) 자극 전파 (전파+발명)

-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하는 이두를 만들었다.
- 외래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
- 타 문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 A국은 갑국과의 교류를 통해 갑국의 문자를 모방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
- C국은 A국의 '활'을 활용하여 현악기를 개발하였다.
- 다른 나라의 종교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만든 신흥 종교

(2) 문화 변동의 양상

1) 문화 동화 ($A + B = B$)

- 국민들은 과거에 행했던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하였다.
- 신흥 종교가 기존 종교를 대체한 사례

2) 문화 공존(병존) ($A + B = A, B$)

- 한국에서 전통 시장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이 자리 잡은 것
-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 자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 이웃 나라의 특정 음료가 자국민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가 되었다.
- 개량 의복과 서구 의복의 혼재
- 주변국의 음식 및 조리법 도입으로 전통식과 외래식 혼재
- 서로 다른 문화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

3) 문화 융합 ($A + B = C$)

- 서양의 결혼 예식과 전통 폐백 의례가 결합된 현재 한국의 결혼식
- A국의 요리법과 B국의 요리 재료가 결합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냈다.
- △△국에서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의 침대 문화가 혼합된 돌침대가 만들어짐
-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 라이스 버거 (밥+버거)와 같은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 전통 의복을 서구식으로 개량한 새로운 의복 등장
-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이 결합된 새로운 음식 등장
- 온돌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과 서양식 주거 문화의 실용적 요소가 접목되어 바닥 난방식 아파트가 만들어짐
-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되어 백김치 대신 빨간 김치가 보편화됨
- ‘바인 미’가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하였다.

❖ 사회 불평등 현상

(1)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1) 기능론적 관점

- 차등적인 보상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직업의 중요성이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 사회 계층화 현상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 이주 노동자의 재사회화를 강조한다.
-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의 통합을 강조한다.
- 직업 간에 발생하는 보수의 차이는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 차등 분배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
- 균등 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 차등 분배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제이다.
- 개인의 성취동기가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은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 자녀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가 비례 관계이다.
- 희소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된다고 본다.
-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 개인의 성취동기와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사이가 무관하다고 본다.
-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2) 갈등론적 관점

-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본다.
- 희소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강조한다.
-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은 권력 유지를 위한 기득권 집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 자녀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는 무관하다.
-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 갈등 정도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한다.

3)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

-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한다.

(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1) 계급론

- 경제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 계층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한다.
-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한다.
-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한다.
-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다고 본다.
- 계층론에 비해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한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인 위계화로 파악한다.
- 계층 간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2) 계층론

- 경제적 계급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위 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고 본다.
- 계급론에 비해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
- 경제적 차원인 계급, 사회적 차원인 신분, 권력적 차원인 파당의 세 가지 차원을 같이 고려하여 사회 불평등을 설명한다.
-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한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다원론적 관점으로 본다.
- 자유로운 사회 이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3) 계급론과 계층론의 공통점

-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
-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고 본다.
- 모두 경제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 빈곤 유형

(1) 절대적 빈곤

-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에 있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최저 생계비를 활용한다.
-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 상대적 빈곤

- 사회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박탈 상태에 처한 경우
-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대비하여 낮은 소득 수준의 계층이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라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
-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되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중위 소득의 50%를 활용한다.
- 해당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파악한다.

(3)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공통점

-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

(4) 오답 선지

-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더한 것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된다.
- 절대적 빈곤은 개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 절대적 빈곤은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
-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5) 계산 관련 선지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므로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이 같다면 절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1/2과 같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선이 중위 소득의 1/2보다 높다면,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더 높고, 중위 소득의 1/2보다 낮다면,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더 높다.

사회 보장 제도

* 수혜 대상자의 범위: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 공공 부조

** 소득 재분배의 효과: 공공 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1) 사회 보험 : 국민연금, 실업 급여 (고용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국가와 제도 대상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 대상자가 수혜 정도가 아닌 소득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2) 공공 부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 공공 부조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선정하는 것이다.
-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걸쳐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 보험에 비해 빈곤층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3) 사회 서비스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능력이 되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 민간단체를 통해 운영되기도 한다.

(4)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공통점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 사회 변동 이론

(1) 진화론

- 인간 사회는 원시적, 중간적, 근대적 사회로 변해 왔다.
- 사회가 항상 진보한다고 본다.
- 사회 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한다.
-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동일하다고 본다.
- 사회 변동에 의해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본다.
-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 사회 변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모든 발전은 곧 서구화임을 전제로 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 서구 사회가 밟아 왔던 변동의 과정이 최선이라고 본다.
- 사회 변동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결합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 순환론에 비해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다.

(2) 순환론

- 문명도 생애 주기가 있어서, 일련의 발생과 성장 단계를 거쳐서 결국 몰락의 과정을 겪는다.
- 사회 변동이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고 본다.
-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인류 문명에서 개별 사회의 성장과 쇠퇴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 변동하는 것으로 본다.
-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3) 진화론과 순환론의 공통점

- 사회 변동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 산업 사회 vs 정보 사회

(1) 산업 사회의 특징

- 기술과 조직의 합리성 원리를 도입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가 중심이 된다.
- 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2) 정보 사회의 특징

-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인간의 주요 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이다.

번호	내용	특징
1	소품종 대량 생산 비율	산 > 정
2	면대면 접촉의 비중 (비대면은 정반대)	산 > 정
3	관료제 조직의 비중	산 > 정
4	다품종 소량 생산 비율	정 > 산
5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	산 > 정
6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불분명한 정도	정 > 산
7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분리는 정반대)	정 > 산
8	전자 상거래 비중	정 > 산
9	기술 발전의 속도	정 > 산
10	의사 결정의 분산화 정도	정 > 산
11	지식 정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정 > 산
12	직업의 동질성 정도 (분화, 이질성은 정반대)	산 > 정
13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정도	정 > 산
14	확대 가족의 비중	산 > 정
15	사회의 다원화 정도	정 > 산
16	정보 확산의 정도	정 > 산
17	3차 산업의 비중	정 > 산
18	2차 산업의 비중	산 > 정
19	핵가족의 비중	정 > 산
20	정보 격차 정도	정 > 산

1.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01 21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8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다큐멘터리 ‘생명의 땅 OO습지 1년의 기록’』

㉠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면서 형성된 습지, 그곳의 독특한 생태계를 특수 촬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수풀의 환상적인 풍경, ㉢ 샷, 고니 등 평소 보기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수생 식물이 습지를 빼곡하게 메워 펼쳐지는 연못빛 군락은 물론이고 ㉣ 개화가 잘 되지 않아 ‘백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 가시연꽃의 모습은 특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8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7년 최초로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 숲 모기에 의해 피부 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을 유발하고, 혈액을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 2016년 2월 세계 보건 기구는 지카 바이러스가 ㉡ 태아의 뇌 기능을 저하시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고, 신경계 이상과도 연관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국제 공중 보건 긴급 사태를 선언하였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범칙을 따른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 ㉡,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03 21학년도 수능 1번

[정답과 해설 9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로부터 ㉠ 옹기는 음식의 발효와 저장을 위해 사용된 생활필수품이었다. 열이 가해지면 ㉡ 흙 알갱이의 크기 차이로 인해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되어 숨 쉬는 옹기가 만들어졌다. 조상들은 김장 김치를 옹기에 담아 겨울 동안 땅속에 보관하여 가장 맛있는 상태로 유지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땅속 옹기의 음식 보관 온도인 ㉢ -1℃ 상태에서 김치의 유산균 개체 수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9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무게 단위(kg)로 표시하거나, ㉢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0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칠레 연안 로빈슨 크루소 섬에 서식하고 있던 염소는 에스파냐 무역선을 괴롭히던 해적의 식량원이었다. 이에 ㉠ 에스파냐 해군은 한 쌍의 개를 섬에 상륙시켰다. 그 후 개체 수가 늘어난 개가 염소를 잡아먹으면서 염소의 수가 줄어들었다. 염소의 수가 줄자 개의 개체 수도 줄어들어, ㉡ 개와 염소 간에 수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19세기 서양 지식인은 ㉢ 정부, 법률, 도덕의 개입 없이도 사회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다. ㉣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 수가 조절된다는 점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내는 합리적 원리였다. 이로부터 인간이 지닌 정치적 면모 대신 생물학적 면모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06 22학년도 수능 1번

[정답과 해설 10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한 ㉠ 아라비아반도 남부 지역에 열대성 저기압이 상륙해 하루 만에 300mm가 넘는 비를 뿌렸다. 세계 기상 기구(WMO)는 이처럼 ㉡ 유례없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 기상 데이터와 예보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 강수 패턴과 농업이 가능한 계절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01 17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정답과 해설 11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 :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학교, 사회가 모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을 : 최근 사건을 보면 대부분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기득권층에서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병 : 이 문제는 제도적 결함이나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상황 정의와 부모와 자녀 간의 왜곡된 상호 작용이 원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행위 주체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시한다.
- ②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
- ③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주목한다.
- ④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의 불평등 구조에 주목한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02 18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정답과 해설 11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사회 규범은 대다수 구성원이 특정 행위에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들이 그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

(나) 사회 규범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기득권층의 의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들이 사회 규범을 마치 사회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구성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사회가 유지된다.

(다) 사회 규범은 전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 규범의 내용과 의미가 사회화를 통해 전승됨으로써 사회의 존속이 가능하다.

- ① (가)는 (다)와 달리 사회 갈등과 투쟁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사회 변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 ⑤ (가), (다)는 (나)와 달리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03 18학년도 수능 7번

[정답과 해설 12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자 : 노인 소외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갑 :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가치관과 규범이 변화되고, 세대 간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을 :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고, 노인도 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병 :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부와 권력의 분배를 중년층이 좌우하면서 노인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역할에서 노인들을 배제해 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며 집단 간 갈등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 ⑤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04 21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정답과 해설 12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판소리 흥부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자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신세 한탄만 하며 형에게 의존하려는 흥부와 달리 놀부가 부자가 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상당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규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갑



을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우인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 희소 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흥부가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아 고맙다고 말하며 다른 뺨을 내민 장면이 주목합니다. 형수는 흥부를 내쫓기 위해 주걱을 휘둘렀지만 흥부는 배고픈 시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병

- ① 갑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⑤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05 21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과 해설 13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사회자: 최근 들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희소 자원이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여건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을: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병: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 ③ 병의 관점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응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 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06 21학년도 수능 14번

[정답과 해설 13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사회자: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갑: 예전에는 고용주를 비롯해 대다수 직원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을: 워라밸은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현상일 뿐입니다.

병: 워라밸 문화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재충전하여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⑤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07 22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정답과 해설 14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에서는 폐결핵에 걸린 지식인과 예술인의 마른 자태를 열정과 낭만의 징표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 (나) 질병은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규정된다. 따라서 질병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볼 수 있다.
- (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질병으로 나타난다. 질병에 걸릴 위험은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가)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나)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④ (나)의 관점은 (다)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는 (가)와 (다)의 관점을 구분할 수 없다.


08 22학년도 9월 평가원 2번

[정답과 해설 14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사회자

혼밥족*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을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는데, 이러한 식사 규범이 약화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갑


 을

과거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외톨이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 혼밥족: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

- ①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 ⑤ 을, 병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09 22학년도 수능 3번

[정답과 해설 15page]

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가)	예	아니요	아니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가?	아니요	예	예

— <보 기> —

- ㄱ. A는 B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ㄴ. B는 C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다.
- ㄷ. C는 A와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ㄹ. (가)에는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8. 일탈 이론

01 18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정답과 해설 47page]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어떤 사회에서는 특정 목표가 모두에게 강조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기회는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일탈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 (나) 사회 집단은 그들이 만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일탈이라고 보고, 이 규칙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하여 일탈자를 만들어 낸다. 일탈은 행위의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처벌을 위반자에게 적용한 결과이다.
- (다) 사회 구조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조건을 형성해 주지만, 그 자체가 일탈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일탈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동기, 기술, 법에 대한 태도 등을 습득하면서 발생한다.

- ① (가)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법으로 일탈 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 ② (나)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법으로 일탈자에 대한 사회 통제와 규제 강화 방안의 마련을 강조한다.
- ③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 ④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 ⑤ (나), (다)는 (가)와 달리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수업용 읽기 자료》

- 드라마 등장인물 A 소개 -

A는 선배들과 두루 잘 지내는 편이었다. 중학생 때는 비행을 저지르는 선배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다른 학생들에게 짓궂게 장난치기도 했다. 하지만 A는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신을 그런 선배들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행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친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A는 평범한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교사 : 이 자료에 나타난 A의 사례를 일탈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갑 : A의 일탈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일탈은 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을 : 저는 갑과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A의 일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A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A의 일탈 요인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 : 갑, 을 모두 잘 설명했어요. A의 일탈이 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두 학생 모두 동일하군요.

- ① (가) - A의 행동에 대한 차별적 제재
- ② (나)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 ③ (나)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
- ④ (다) - 일탈에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
- ⑤ (다) - 타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03 21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정답과 해설 48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공식적인 처벌과 범죄 행위와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이 그림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가)이론을 분석해 봅시다.

<조건>
 • A-D 집단 모두 t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함.

		t+1년에서의 범죄 경험	
		유	무
t년에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	유	A 집단	B 집단
	무	C 집단	D 집단

<보 기>

- ㄱ. (가) 이론에 따르면 B 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다.
- ㄴ. D 집단은 (가)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 ㄷ. (가) 이론에 따르면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한 집단이다.
- ㄹ. (가) 이론은 일탈자와 C 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을 일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본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수업용 읽을거리〉

중학생이었던 A와 B는 가벼운 장난을 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로 문제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 인해 A는 스스로도 문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폭력 사건 가해자로 경찰서에 들락거렸다. 한편 고등학교에 입학한 B는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런데 기록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까지 복용하다 적발되어 프로구단 입단 기회가 박탈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범죄 조직에 가입한 A는 B에게 범죄 행위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하여 접촉하였다. 결국 돈이 필요했던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교사 : A, B의 사례에 일탈 이론을 적용해 보세요.

갑 : A의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나타난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A의 일탈 행동에는 (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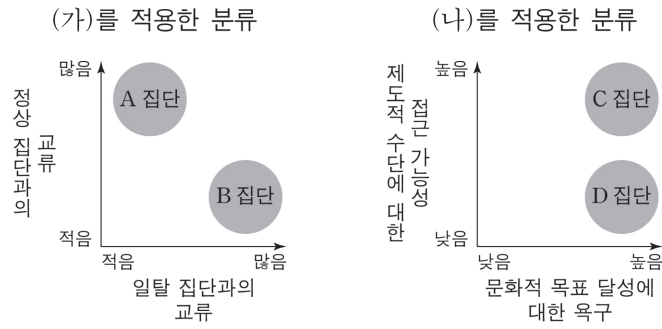
을 : B의 고등학교 입학 후의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B의 일탈 행동에는 (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병 : B가 A와 접촉하여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B의 일탈 행동에는 (다)를 적용해야 합니다.

교사 : A, B의 일탈 행동에 (가), (나)는 적절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다)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① (가)는 일탈 집단 대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 ② (나)는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③ (다)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 ④ (가), (나)는 모두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 ⑤ (나)는 (가),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림은 일탈 이론 (가), (나)를 적용하여 청소년을 특성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에 따르면, B 집단보다 A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 ② (나)에 따르면, C 집단보다 D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중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일탈 이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수행 평가>

※ 문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탈 이론 A, B에 근거하여 의견을 서술하시오.

A	B
어렸을 때에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형사 처벌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범죄자로서의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어린 나이에 일탈 행동을 일삼는 도래와 어울리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형사 처벌을 받아 교정 시설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 부터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① A는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② B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⑤ A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B는 일탈 행동에 대한 신중한 규정을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한다.

12. 문화 변동

01 17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정답과 해설 67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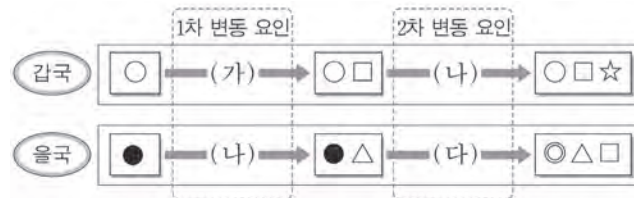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다음은 문화 변동의 요인을 (가)~(다)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사례를 분석한 자료이다. 갑국과 을국은 상호 교류 이외에 다른 제3의 국가와는 교류를 하지 않았다. 단, (가)~(다)는 각각 발명, 직접 전파, 자국 전파 중 하나이다.

<문화 변동의 요인>

구분	(가)	(나)	(다)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	아니요	예	예
타 문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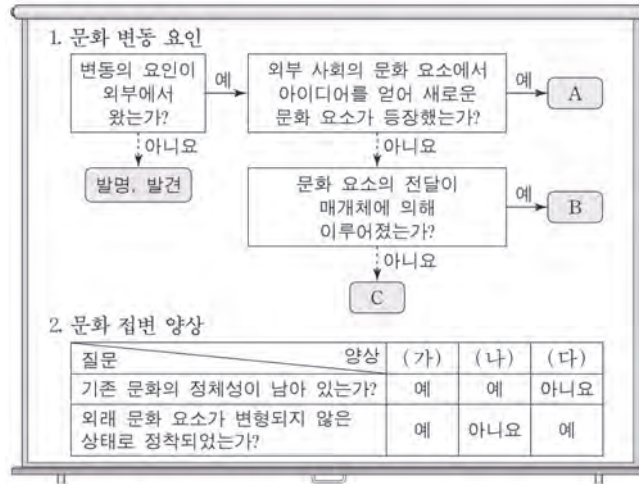
* ○, ●, □, △, ☆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의미함.

** ◎는 ○와 ●가 결합하여 나타난 제3의 문화 요소임.

<보 기>

- ㄱ. (가)는 발명, (나)는 직접 전파이다.
- ㄴ. 을국에서는 (다)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ㄷ. 갑국에서 창조된 문화 요소가 을국으로 전달되었다.
- ㄹ. 을국은 1차, 2차 변동에서 모두 갑국의 영향을 받았다.

자료를 통해 문화 변동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직접 전파 중 하나이고, (가)~(다)는 각각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중 하나이다.) [3점]



- ① 다른 나라의 종교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만든 신흥 종교가 기존 종교를 대체한 사례는 A에 의한 (가)에 해당한다.
- ②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자국의 첨단 매체 발달에 기여한 사례는 B에 의한 (나)에 해당한다.
- ③ 케이팝(K-pop)의 인기로 외국인이 한국어 배우러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사례는 B에 의한 (다)에 해당한다.
- ④ 자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의 언어와 자국의 전통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례는 C에 의한 (가)에 해당한다.
- ⑤ 이웃 나라의 특정 음료가 교역을 통해 들어와 자국민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가 된 사례는 C에 의한 (나)에 해당한다.

03 19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정답과 해설 69page]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노예 해방 이후에도 미국 흑인들의 삶은 고달팠다. 이들은 삶의 애환을 음악에 담아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 블루스이다. 한편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 웨스턴 뮤직이 출현하였다. 백인들은 ㉢ 블루스를 ‘인종 음악’이라고 부르면서 천대하였고, 자신들의 음악과 철저히 구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무렵 흑인과 백인의 음악은 각각의 색채가 모두 담긴 ㉣ 새로운 음악 장르인 로큰롤로 발전되었다. 당시 로큰롤은 ㉤ 통속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후 ㉥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진출하면서 대중문화의 한 줄기를 이루었다.

- ① ㉠, ㉡은 모두 미국 사회의 하위문화였다.
- ② ㉢은 문화 지체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은 문화 공존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은 물질문화의 확산에 대한 반발이다.
- ⑤ ㉥은 강제적 문화 접변 사례에 해당한다.

04 20학년도 6월 평가원 4번

[정답과 해설 69page]

다음 두 사례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요즘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생체 정보, 신용 카드 정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간소화된 지불 절차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신종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 최근 ‘먹방’, ‘신제품 리뷰’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방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제작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그대로 방송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 ① 물질문화의 발명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 ② 지배적인 문화의 질적 저하로 인해 반문화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문화 요소 간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 ④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문화의 상업화와 획일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위문화가 전체 문화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05 20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정답과 해설 70page]

표는 문화 접변의 결과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A	B
의미	(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흡수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
사례	온돌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과 서양식 주거 문화의 실용적 요소가 접목되어 바닥 난방식 아파트가 만들어짐	(나)

- ① A는 B와 달리 외래 문화의 유입에도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 ② A와 B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강제적 이식 여부'이다.
- ③ A, B 모두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 ④ (가)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되어 백김치 대신 빨간 김치가 보편화됨'이 들어갈 수 있다.

06 20학년도 수능 13번

[정답과 해설 70page]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크루아상(croissant)'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 빵이다.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 낸 오스트리아인들이 적국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 왕세자와 혼인한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오면서 이 빵이 프랑스에 널리 전해졌다.

(나) 베트남 음식인 '바인 미(bánh mì)'는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에 전래된 프랑스 빵 바게트에서 유래하였다. 처음 베트남인들은 바게트를 고급 음식으로 여겨 연유에 찍어 먹었다. 이것이 이후에 '바인 미'로 불리게 되었고,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하였다.

- ① (가)에는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에는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와 달리 간접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에는 (가)와 달리 자극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에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07 21학년도 9월 평가원 3번

[정답과 해설 71page]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일본에서 '완탕'으로 불리는, 만둣국의 일종인 '완당'은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져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식 완탕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육수를 내지만,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국수처럼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이다.
- (나)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는 인도의 '카리'가 기원이다.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가져간 카리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일본에 전래되었다. 카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가츠 카레(카레 돈가스)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였고, 기존의 우동, 돈가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① (가)에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에는 모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08 21학년도 수능 16번

[정답과 해설 71page]

A ~ C국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식사 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던 A 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 B 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 조리 도구로 사용하였다.
- C 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음식을 즐기게 되었다.

- ① A 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B, C 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② A, C 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B 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 ③ A, B 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C 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④ A, B 국은 C 국과 달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 ⑤ A, C 국에서는 B 국과 달리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발생한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1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변동만, 2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 간 문화 접변만 있었다. (가)~(라)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며, (가)와 (다)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이다.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구분	변동 전 문화 요소	1차 문화 변동		2차 문화 변동	
		변동 요인	추가된 문화 요소	변동 요인	추가된 문화 요소
갑국	a	(가)	c	(다)	e
을국	b	(나)	d	(라)	a, c

* a~e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의미하며, 이외에 다른 문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제시된 문화 변동 이외에 다른 문화 변동은 없었으며, 문화 요소의 소멸도 없었다.

- ① (가)는 발견, (다)는 자극 전파이다.
- ② (나)는 (라)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다.
- ③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 ④ 을국은 매개체를 통해 갑국의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다.
- ⑤ 2차 문화 변동 결과, 갑국과 을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는 3개이다.

10 22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정답과 해설 73page]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국 사람들은 A 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A 국의 전통 옥수수빵을 따라 만들어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
- 을국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만난 B 국 사람들이 B 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냅킨 등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독특한 식사 문화를 갖게 되었다.
- 병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C 국 이민자들이 C 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호미를 구매하여 정원을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① 갑국에서는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 ② 을국에서는 매개체를 통해 타문화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다.
- ③ 병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 간 접촉을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다.
- ④ 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 을국과 병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 ⑤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11 22학년도 수능 17번

[정답과 해설 73page]

A ~ C 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국은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보관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뜨거운 물로 살균한 유리병에 넣은 병조림을 만들었다. 전쟁 중에 B 국은 A 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철제 통조림을 개발하였다. 한편 B 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C 국의 한 발명가가 철제 통조림 뚜껑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따개를 개발하였다. 훗날 C 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하고 A 국과 B 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후, 세 나라 모두 원터치 캔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 ① A 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② B 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③ C 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④ A 국에서는 B, C 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⑤ A, B 국에서는 C 국과 달리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14. 빈곤 유형

01 19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정답과 해설 79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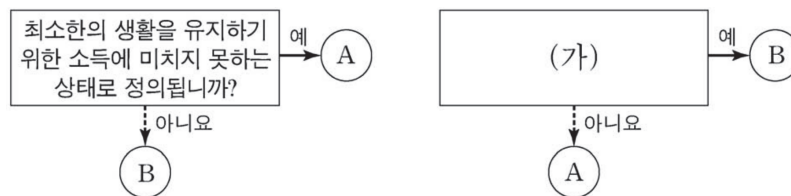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주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A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가) 을/를 활용한다. B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되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B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나) 을/를 활용한다.

- ① B는 개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 ② B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가구라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 ④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의 합이 그 나라 전체의 빈곤율이다.
- ⑤ (가)는 중위 소득의 50%, (나)는 최저 생계비이다.

02 19학년도 9월 평가원 7번

[정답과 해설 79page]

그림은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3점]



— <보 기> —

- ㄱ.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ㄴ. B는 해당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파악한다.
- ㄷ.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ㄹ. (가)에는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까?'가 적절하다.

03 20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정답과 해설 80page]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 학습 주제: 빈곤 유형

1. A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A 가구로 분류함

2. B

-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B 가구로 분류함

- ① B는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② A,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 ③ B에 해당하는 가구는 A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 ⑤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 가구에 포함된다.

04 20년 3월 교육청 6번

[정답과 해설 80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3점]

갑국에서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 절대적 빈곤 가구,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 상대적 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2019년에 갑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15%, 상대적 빈곤 가구 중 50%로 나타났다.

- ① ㉠은 ㉡과 달리 판단 기준이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이다.
- ③ 2019년 갑국에서 최저 생계비보다 중위 소득의 50% 금액이 작다.
- ④ 2019년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35%이다.
- ⑤ 2019년 갑국에서 두 유형의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없다.

05 21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정답과 해설 81page]

표는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유형	A	B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되는가?		아니요	예
(가)		예	아니요

- ① 우리나라에서는 A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 ② B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B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A 가구에 포함된다.
- ④ 전체 빈곤율은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합한 것이다.
- ⑤ (가)에는 '상대적 박탈감 발생의 원인이 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06 22학년도 6월 평가원 17번

[정답과 해설 81page]

빈곤 유형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가)와 (나)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 (가) 생존 및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나)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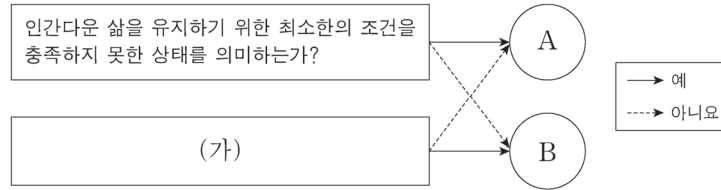
— <보 기> —

- ㄱ. (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임금액을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ㄴ. (가)에 속하지 않는 가구도 (나)에 속할 수 있다.
 ㄷ. (나)는 (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ㄹ. (가)와 (나)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07 22학년도 9월 평가원 7번

[정답과 해설 82page]

그림은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3점]



- ① A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 ② B는 해당 사회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 ③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 ④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도 해당한다.
- ⑤ (가)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08 22학년도 수능 9번

[정답과 해설 82page]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A는 인간으로서 신체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는 소득이 불충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한 B가 도입되었다.

- ①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 ② B는 A와 달리 중위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B와 달리 A를 파악할 때,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할 때, 모두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구분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가?	개입되지 않는다	개입된다
가치 판단	개입되지 않는다	개입된다
	물가치적(탈가치적) 현상	가치 함축적 현상
확실성 vs 확률성	존재 법칙의 지배	당위 법칙의 지배
	확실성의 원리, 필연성	확률성의 원리, 개연성
	인과 법칙의 지배	인과 관계 존재
	→ 둘 다 인과 관계는 존재한다	
보편성, 특수성	보편성 O 특수성 X	보편성 O 특수성 O
예측	예측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복, 관찰, 재현 용이	예측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복, 관찰, 재현 곤란
	→ 둘 다 예측은 가능하다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	둘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한다	

◆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① 거시적 관점 vs 미시적 관점

구분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사회 구조 vs 개인의 상호작용	사회 구조를 중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중시
구조화	구조화된 행동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인간의 수동성, 구속성 강조	인간의 능동성, 자율성 강조
연관 이론	사회 실재론	사회 명목론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붙여진 명칭에 불과
해당하는 이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구분	기능론	갈등론
현실 인식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혁, 기존 질서의 붕괴를 목표
사회 불평등 이론	불평등은 필수불가결하다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성원 전원의 합의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과 분배의 기준 만들어짐, 능력, 노력이 성공을 좌우함	지배층만의 합의로 분배의 기준 만들어짐, 가정 배경이 성공을 좌우 (계급 대물림, 세습, 고착화, 재생산)
	기능적 중요도의 차이 존재	모든 직업은 똑같이 중요
사회 문제 이론	원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일부 개인의 부적응, 일부 제도의 미비 등
	성격	일시적, 예외적, 병리적
	해법	재사회화, 제도 보완 등
사회 변동 이론	일반적으로 변화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적 현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균형 회복을 위한 점진적 변동은 긍정적으로 바라봄	구조 자체의 모순
		항시적, 대립적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변혁
		변화는 발전의 계기, 급진적 변동 추구

② 상징적 상호작용론

1) 전제 :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 존재,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

2) 핵심 주장

-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관적으로 정의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

- 인간은 상징을 활용하여 타인과 상호 작용

-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

3) 의의 : 인간의 능동적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설명하는데 유용함

4) 한계 :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경시

◆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① 양적 연구

② 질적 연구

구분	양적 연구 (실증적 연구)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
전제	방법론적 일원론 (자연과학의 방법 활용)	방법론적 이원론 (사회과학만의 방법 활용)
목적	법칙 발견, 미래 예측	인간 내면의 심리, 의도, 동기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
연구 단계	① 문제 제기 : 연구 주제 설정 ② 가설 설정 :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진술 1) 선행 연구 검토 2) 가설 설정 및 가설의 요건 검토 ③ 연구 설계 : 조사 시기, 기간, 규모, 대상, 방법 결정, 개념의 사전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④ 자료 수집 : 주로 질문지법, 실험법 ⑤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⑥ 가설 검증 : 가설의 진위 여부 확인 ⑦ 결론 도출 및 일반화 ⑧ 결론 활용	① 문제 제기 : 소수 집단에 관심 ② 연구 설계 : 사전적 정의 O, 조작적 정의 X ③ 자료 수집 : 주로 면접법, 참여 관찰법 ④ 자료 해석 : 일기, 낙서, 녹취록 등 비공식적 자료, 감정 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 객관적 연구가 곤란하다는 한계 존재 ⑤ 결론 도출 ⑥ 결론 활용

③ 기출에서 나타나는 양적·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계량화하여 분석 ②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 관계 파악을 목표 ③ 사실과 가치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 ④ 수치화, 계량화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중시 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봄 ⑥ 인간의 행위를 내적 동기와 분리하여 연구 ⑦ 일반화나 법칙 정립을 목적으로 함 ⑧ 현상에 대한 설명 중시	① 감정 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 ②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양적 연구에 비해 낮음 ③ 귀납적 연구 절차를 따름 ④ 비공식적 자료와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 ⑤ 상황 맥락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려 함 ⑥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 세계에 초점 ⑦ 현상에 대한 기술 중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공통점	
① 둘 모두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 하는 과학적 연구 ② 양적 연구 또한 일부 연구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선택,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대안 제시 및 결과 활용) ③ 둘 모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하고, 경험적 자료 중시 ④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수행	

④ 연구자의 태도

- 객관적 태도
- 개방적 태도
- 상대주의적 태도
- 성찰적 태도

⑤ 연구 윤리 원칙

- 사전에 충분한 설명
(다만, 연구에 대해 미리 알리는 게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우 나중에 설명해주면 괜찮음)
- 자발적 동의
- 적절한 금전적 대가 제공
- 연구 대상자의 비밀 보호
-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 X
-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발생한다면 연구 중단

◆ 자료 수집 방법

구분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특징	연구자가 질문지 작성, 응답자가 질문지에 답변 기입, 전화 설문이나 인터넷 설문도 활용 가능	(실험법 연구 예시) 종속 변수 1차 측정 후 표본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 집단에는 독립 변수 처치, 통제 집단에는 독립 변수 처치 X, 그리고 종속 변수 2차 측정	일반적으로 대면 접촉을 통한 질의·응답, 녹취록, 면담 일지 등의 질적 자료 수집, 주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지만 구조화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존재	주로 문화 인류학의 현지 조사에 사용, 함께 생활하며 관찰 일지, 촬영 기록 수집, 질적 자료,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를 수집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사용
장점	① 대규모 자료 수집 용이 ② 통계 처리 용이 (객관성 확보 유리) ③ 높은 경제성	① 인과 관계 규명에 유리 ② 정확성, 정밀성 (변수 통제 후 측정) ③ 객관적 자료 수집 (주관↓, 편견↓)	① 언어적 제약 완화 ② 깊이 있는 답변 (심층적 이해) ③ 솔직한 응답 -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거리 가까움 - 신뢰감(래포) 형성 ④ 연구의 유연성 - 유연한 상황 대처 - 추가 질문, 부연 설명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음	① 자료의 실제성 확보 - 생생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 - 조작 및 통제 수준 매우 낮음 ② 깊이 있는 자료 수집 ③ 언어적 상호작용 필요하지 않음 ④ 조사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도 연구 가능	① 가장 경제적 ② 직접 1차 자료 구할 수 없을 때 유용 ③ 시·공간적 제약 완화
단점	① 언어적 제약 존재 ② 성의 없는 답변, 질문의 오해 가능성 존재 → 오차 발생 ③ 깊이 있는 답변 X (피상적 답변) ④ 낮은 회수율 → 표본의 대표성 저해	① 법적, 윤리적 문제 발생 우려 ② 인간이라는 변수의 통제 곤란 ③ 실제성이 떨어짐 (조작 및 통제 수준 매우 높음)	① 비경제적 ② 자료 해석 시 주관, 편견 개입 ③ 적합한 소수의 표본 찾기 힘들 ④ 연구자의 전문성 요구 ⑤ 언어적 제약 존재	① 비경제적 -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연구 가능 ②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 (예기치 못한 변수의 통제 곤란) ③ 관찰자 효과 발생	① 기록에 남은 것만 연구 가능 ② 질적 문헌 해석 시 주관, 편견 개입 가능성 ③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

질문지법의 유의점
① 애매 모호한 표현 금지 ② 한 문항은 한 가지만을 물을 것 ③ 유도 질문 금지 ④ 답지 속성이 포괄적일 것(응답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제시할 것), 배타적일 것(내용이 중복된 선택지가 없을 것)
자료 수집 방법의 공통점
①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 ②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 ③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용이 ④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큼 ⑤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 ⑥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통계적 처리가 용이하고,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 ⑦ 일반적으로 질문지법,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서, 면접법, 참여 관찰법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나, 함께 사용하기도 함 ⑧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문헌 연구법은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자료 수집 방법 간 비교

- 경제성 : 질문지법, 문헌 연구법 > 면접법 > 참여 관찰법
- 조작 및 통제 수준 : 실험법 > 질문지법 > 면접법 > 참여 관찰법
- 실제성 : 참여 관찰법 > 면접법 > 질문지법 > 실험법 (조작 및 통제 수준의 역순)



II

문제 풀이법 파트

개방형 문제란 문제에 주어진 단서로는 표나 그림에 있는 관점, 이론 등을 모두 적을 수 없는 문제 유형을 의미하며, 이는 선지의 조건에 따라 표나 그림에 있는 관점, 이론 등이 정해지게 된다.

개방형 문제는 자료 유형에 따라 그림 유형과 표 유형으로 나뉘고, 그 중, 그림 유형은 개방 정도에 따라 부분 확정형과 완전 개방형으로 나뉜다. 문제 배열은 다음 표 순서대로 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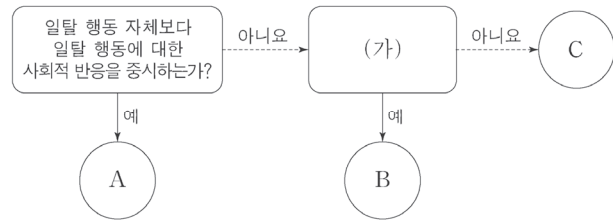
①	그림 - 부분 확정형
②	그림 - 완전 개방형
③	표 유형

〈개방형 문제 풀 때 팁〉

1. 타임어택이 심한 사회·문화 과목의 특성상 이미 들어갈 이론/관점이 정해진 것은 종이에 적어두고, 선지의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리는 것은 **눈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자.** (일명 '눈풀이')
 - 부분 확정형의 경우

〈예시〉 20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변형

그림은 일탈 이론 A~C를 구분한 것이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낙인 이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가)에 들어갈 질문에 따라 B와 C에 들어갈 이론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선지는 '눈풀이'로 처리하도록 하자.

2. 상황 판단을 꼼꼼히 해야 한다.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단하도록 하자. (주로 표 유형의 경우)

〈예시〉 17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변형

표는 일탈 이론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표를 보고 다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이론 \ 질문	(가)	(나)	(다)
A	예	아니오	아니오
B	아니오	아니오	예
C	아니오	예	아니오

·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면,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는 (다)에 적절하다. (×)

⇒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면, C는 낙인 이론이다. (다)에는 차별 교제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둘 다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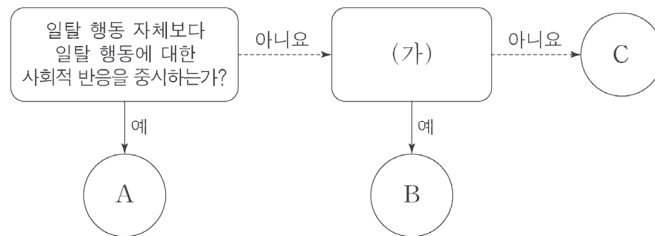
⇒ 해당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아노미 이론이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차별 교제 이론이 '예'라고 답한다고 해도 낙인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개방형 선지는 3가지의 논리적 과정에 따라 분석하도록 하자. (눈풀이 가능하도록 연습하기)

3가지의 논리적 과정은 주로 ① 조건에 나오는 질문이나 문장에 해당하는 관점/이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② 뒤에 나오는 질문이나 문장에 어떤 관점/이론이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하기 → ③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기(선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시〉 20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변형

그림은 일탈 이론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 ① B가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 (가)에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가)가 ‘일탈 행동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 차단을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라면, C는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 반복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③ (가)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는가?’라면, A, C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20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변형 해설 / 정답 : ③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낙인 이론이다. → 표시해 두기

〈선지 분석〉

- ①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탈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B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가)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예',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모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일탈 행동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 차단을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 일탈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할 차별 교제 이론은 B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C이다. →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 반복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 ③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는 일탈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B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차별 교제 이론은 C이다. →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채점 및 카드 게임 유형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관점/이론이나 주어진 답변에 맞는 관점/이론을 적는 것이다. 해당 관점/이론을 적은 이후에는 문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채점 유형의 경우에는 ‘예/아니요’에 대한 정·오답에 관한 판단과 귀류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카드 게임 유형의 경우에는 선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판단을 하되, ‘* 복원 추출인지 ** 비복원 추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카드 게임 유형에서 말하는 **복원 추출**은 첫 번째 사람이 상자에서 카드를 꺼낸 후 다시 **그 카드를 상자에 넣고**, 다음 사람이 상자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 카드 게임 유형에서 말하는 **비복원 추출**은 첫 번째 사람이 상자에서 카드를 꺼낸 후 **그 카드를 상자에 넣지 않고**, 다음 사람이 상자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1. 채점 유형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아래에 있는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채점 결과 \ 학생의 답변	‘예’	‘아니요’
○	예	아니요
×	아니요	예

귀류법 활용하기

귀류법 :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려 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 또는 공리 등이 모순됨을 보여 간접적으로 그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A가 갈등론일 때는 주어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만, 기능론일 때는 획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A가 기능론일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로는 주어진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1학년도 수능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갑	을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아니요	㉠
(가)	예	예
A는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B는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요	예
점수	2점	1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 <보기> —

- ㄱ. (가)에는 'A는 B와 달리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은 '아니요'이다.
- ㄷ. A는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 ㄹ. B는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21학년도 수능 10번 해설 / 정답 : ㄱ, ㄴ

다음은 문제에 있는 각 질문에 ‘예’라고 답할 관점을 적은 것이다.

질문	‘예’라고 답할 관점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기능론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기능론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기능론

(1) 우선 A를 기능론, B를 갈등론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갑은 네 번째 질문에만 옳은 답변을 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한 것이 되므로 두 번째 질문에 옳게 답변해야 갑이 2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는 옳은 답변을,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하므로 갑과 을의 답변을 비교하면 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것이 된다.

〈A가 기능론, B가 갈등론일 때 획득 점수〉

	갑	을
첫 번째 질문	0점	0점 or 1점
두 번째 질문	1점	1점
세 번째 질문	0점	1점
네 번째 질문	1점	0점
점수	2점	최소 2점

이는 을의 점수가 1점이라는 것에 모순되므로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다. (귀류법)

(2) A가 갈등론, B가 기능론이라면 갑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옳은 답변을, 네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한 것이 되므로 두 번째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해야 갑이 2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옳은 답변을,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하므로 갑과 을의 답변을 비교하면 을은 네 번째 질문에만 옳은 답변을 한 것이 된다. 을이 1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해야 하므로 ㉠에 들어갈 을의 답변은 ‘예’이다.

〈선지 분석〉

ㄱ. (가)에는 ‘아니요’가 옳은 답변이 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B)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아니요’가 옳은 답변이 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을은 첫 번째 질문에 틀린 답을 하므로 ㉠에 들어갈 답변은 ‘예’이다.

ㄷ.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B)이다.

ㄹ. 기능론(B)은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 채점 유형은 쉽지 않은 유형이니 이해가 갈 때까지 풀어보길 바란다. 비슷한 유형으로 이미 출제되었던 21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다음은 사회 변동 이론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답변	
	갑	을
A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예	아니요
B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아니요	예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예	㉠
(가)	아니요	예
점수	3점	2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기〉

- ㄱ.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ㄴ.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 ㄷ. ㉠은 '예'이다.
- ㄹ. (가)에는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해설 / 정답 : 나, 다, 르

다음은 문제에 있는 각 질문에 ‘예’라고 답할 관점을 적은 것이다.

질문	‘예’라고 답할 관점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진화론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순환론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진화론

(1) 우선 A를 진화론, B를 순환론이라고 하자. 그러면, 갑은 첫 번째 질문에만 옳은 답변을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한 것이 되므로 네 번째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점이다.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일 때 갑의 획득 점수〉

첫 번째 질문	1점
두 번째 질문	0점
세 번째 질문	0점
네 번째 질문	0점 or 1점
점수	최대 2점

이는 갑의 점수가 3점이라는 것에 모순되므로 A는 순환론, B는 진화론이다. (귀류법)

(2)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이라면 갑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옳은 답변을, 첫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갑이 3점을 얻기 위해서는 네 번째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해야 한다. 갑과 을의 답변을 비교하면 을은 첫 번째 질문에는 옳은 답변을,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을이 2점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해야 하므로 ㉠에 들어갈 을의 답변은 ‘예’이다.

〈선지 분석〉

ㄱ.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순환론(A)이 아니라 진화론(B)이다.

나. 진화론(B)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다. 옳은 세 번째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하므로 ㉠에 들어갈 답변은 ‘예’이다.

르. (가)에는 ‘아니요’가 옳은 답변이 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순환론(A)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아니요’가 옳은 답변이 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한 학생 갑~병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서술형 평가 문제〉		
번호	문제	
1	A와 C의 공통점을 1가지만 서술하십시오.	
2	C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1가지만 서술하십시오.	
3	A에서 바라보는 C에 대한 비판을 1가지만 서술하십시오.	
〈학생 답안 및 채점 결과〉		
학생	답안	점수
갑	1.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2. 행위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3. 사회의 질서 유지 및 안정 회복 능력을 간과한다.	2점
을	1.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2. _____ (가) 3.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병	1. 개인을 행위와 상황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라고 본다. 2.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3.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한다.	0점

* 각 문제별로 채점하며, 문제별 답안 내용이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 ① A는 B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상황의 맥락적 이해를 중시한다.
- ② B는 C와 달리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 ③ C는 A와 달리 사회 각 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 관계를 중시한다.
- ④ B, C는 A와 달리 갈등과 대립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 ⑤ (가)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따라 사회 규범이 정해진다.'라면, ㉠에는 '3점'이 적절하다.

20년 7월 교육청 2번 해설 / 정답 : ③

다음은 학생의 답안에 맞는 각각의 관점을 적은 것이다.

학생	답안	관점
갑	1.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기능론, 갈등론
	2. 행위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3. 사회의 질서 유지 및 안정 회복 능력을 간과한다.	기능론이 할 비판
을	1.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기능론, 갈등론
	3.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기능론이 받을 비판
병	1. 개인을 행위와 상황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라고 본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2.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기능론
	3.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한다.	갈등론이 받을 비판

갑과 병은 답안과 점수가 각각 모두 나와 있다. 그러므로 갑과 병 중 누구를 먼저 확인하더라도 A, B, C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자.

(1) 갑을 먼저 볼 경우 (귀류법)

- B가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라면, 갑은 1번과 2번의 문제에 틀린 대답을 한 것이 되므로 갑은 2점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A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병을 보아야 한다.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면 병은 1번과 2번의 문제에는 틀린 대답을 한 것이 된다. 병의 3번 답안을 보면 C는 갈등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C는 기능론, A는 갈등론이다.

(2) 병을 먼저 볼 경우

- 병이 0점이 되려면, 병은 모든 문제에 틀린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2번 답안을 통해서 B는 기능론이 될 수 없고, 3번 답안을 통해서 C는 갈등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 B	B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①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		③	

- 갑의 경우 B가 갈등론이라면(①, ③) 갑은 모든 질문에 틀린 답안을 쓰게 되므로 갑의 점수는 2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고, C는 기능론이다. 그리고 A는 갈등론이다. (②번의 경우)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상황의 맥락적 이해를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다.
- ②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C)이다.
- ③ 기능론(C)은 사회 각 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 관계를 중시한다.
- ④ 갈등과 대립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는 관점은 갈등론(A)이다.
- ⑤ A가 갈등론,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 C가 기능론이라면 을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옳은 답안을 한 것이 되므로 을이 2번 질문에 옳은 응답을 했다면 3점을 얻고, 틀린 응답을 했다면 2점을 얻는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따라 사회 규범이 정해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따라서, 해당 문장이 (가)에 들어가면 을의 점수는 3점이 아니라 2점이 된다.

다음은 일탈 이론 A~C에 대한 수행 평가 및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수행 평가 문제〉		
학생	과제 내용	
갑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을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병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각 학생의 서술 및 교사의 채점 결과〉		
학생	서술 내용	점수
갑	1.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2.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3.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점
을	1.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 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2.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찾는다. 3.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
병	1.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2.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3. _____ (가) _____	1점

* 교사는 각 서술별로 채점하고, 서술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p>ㄱ. ㉠은 2점이다.</p> <p>ㄴ. (가)에는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p> <p>ㄷ. B는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p> <p>ㄹ. C는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p>



20학년도 수능 10번 해설 / 정답 : **ㄷ, ㄹ**

다음은 학생의 서술 내용에 맞는 일탈 이론을 적은 것이다.

학생	서술 내용	일탈 이론
갑	1.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낙인
	2.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낙인, 차별 교제
	3.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낙인
을	1.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 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아노미(뒤르켐)
	2.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찾는다.	낙인
	3.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아노미, 차별 교제
병	1.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차별 교제
	2.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낙인

학생 갑 ~ 병 중 서술 내용과 점수가 모두 나와 있는 학생은 갑이므로 갑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 갑은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적어야 하는데, 갑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낙인 이론만의 특징을 서술하였고, 두 번째에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의 공통적인 특징을 서술하였으므로 갑이 2점을 얻기 위해서는 B가 낙인 이론, A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을은 낙인 이론(B)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C)의 특징을 적어야 한다. 을의 세 번째 서술 내용에만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특징을 서술했으므로 을의 점수(㉗)는 1점이다.
- 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C)과 구분되는 차별 교제 이론(A)의 특징을 적어야 한다. 병은 첫 번째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구분되는 차별 교제 이론의 특징을 적었으므로, 1점을 얻기 위해서 병은 세 번째 서술 내용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C)과 구분되는 차별 교제 이론(A)의 특징을 적어서는 안 된다.

〈선지 분석〉

- ㄱ. 을의 점수(㉗)는 2점이 아니라 1점이다.
- ㄴ. (가)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C)과 구분되는 차별 교제 이론(A)의 특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일탈 행동이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A)뿐이므로 해당 문장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낙인 이론(B)은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 ㄹ. 머튼의 아노미 이론(C)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마련을 중시한다. 따라서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III

표 파트

1. 가중평균의 정의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해 구한 **평균값**

2. 단순 평균과 가중평균의 차이

단순 평균은 각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곱해 구한 평균값이지만, 가중평균은 각 변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른 가중치를 곱해 구한 평균값이다.

(1) 단순 평균

○○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단, ○○ 고등학교의 3학년 학급에는 1반과 2반만이 존재한다.)

구분	3학년 1반	3학년 2반
학급 인원	30명	30명
학급 사회·문화 평균 점수	40점	30점

○○ 고등학교의 3학년 1반과 2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는 직관적으로 35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이 경우에는 3학년 1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와 2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누어서 계산할

것이다. ($\frac{40+30}{2} = 35$)

우리가 ○○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할 때, **단순히 두 학급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더해서 2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두 반의 가중치(학급 인원)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2) 가중평균

○○ 고등학교 3학년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단, ○○ 고등학교의 3학년 학급에는 1반과 2반만이 존재한다.)

구분	3학년 1반	3학년 2반
학급 인원	30명	20명
학급 사회·문화 평균 점수	40점	30점

이 경우에는 단순 평균을 구하듯이 단순히 각 학급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누어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두 반의 가중치(학급 인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두 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학급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 학급 인원이라는 가중치를 곱하는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구해야 한다.

3학년 1반의 학급 인원은 30명, 3학년 2반의 학급 인원은 20명이므로 3학년 1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는 가중치 3을 곱하고, 3학년 2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는 가중치 2를 곱하면 된다. 곱한 두 값을 더한 것은 3학년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 가중치 5를 곱한 값과 같다.

3학년 전체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미지수 x 로 두고, 계산을 통해 x 의 값을 구해보자.

$$(3 \times 40) + (2 \times 30) = (5 \times x)$$

$$180 = 5x$$

$$x = 36$$

3학년 1반의 학급 인원은 2반의 학급 인원의 1.5배이므로 ○○ 고등학교 3학년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서 2반의 평균 점수와 떨어져 있는 거리(6점)가 1반의 평균 점수와 떨어져 있는 거리(4점)의 1.5배인 것이다.

전체 평균은 가중치가 더 큰 쪽에 가까이 있다.

16학년도 수능 15번 변형

x 에 들어갈 비율을 구하여라. (단, ○○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

지역 \ 제도	(가)	(나)
A 지역	5.5	1.9
B 지역	7.6	x
전체	6.9	1.7

16학년도 수능 15번 변형 해설 / 정답 : 1.6

1. x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지역의 인구나 B 지역의 인구가 각각 전체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알아야 한다.
2. 이는 '각 지역의 비율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각 지역의 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면 된다. (가) 제도 수급자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A 지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에서 1.4%p만큼 떨어져 있고, B 지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에서 0.7%p만큼 떨어져 있다. 이는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 **이므로 전체 비율이 B 지역의 비율에 2배만큼 가까운 것이다.**

(단위 : %)

지역 \ 제도	(가)
A 지역	5.5 (전체 - 1.4)
B 지역	7.6 (전체 + 0.7)
전체	6.9

3. 앞의 설명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해보자. 앞에서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B 지역 인구의 비율에 가중치 2를 곱하고, A 지역 인구의 비율에 가중치 1을 곱해서 더한 수치가 전체 인구의 비율에 3을 곱한 값과 같은지를 확인하면 된다.
 $\Rightarrow (5.5 \times 1) + (7.6 \times 2) = 6.9 \times 3$
4. 두 지역 인구의 비를 구하였으니 마지막으로 x 의 값을 구해보자. (나) 제도에서 A 지역의 비율에 1을 곱하고, B 지역의 비율에 2를 곱한 값을 합한 것이 전체 비율에 3을 곱한 것과 같게 해주면 된다.
 $\Rightarrow (1.9 \times 1) + (x \times 2) = 1.7 \times 3$
 $\Rightarrow 2x = 3.2$
 $\Rightarrow x = 1.6$
5. A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인 1.9%는 평균과 0.2%p만큼 차이가 나고, B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인 1.6%는 평균과 0.1%p만큼 차이가 난다. 이는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위 : %)

지역 \ 제도	(나)
A 지역	1.9 (전체 +0.2)
B 지역	1.6 (전체 -0.1)
전체	1.7

21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변형

A 지역 인구를 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제도 수혜자의 수를 구하여 표에 적어라.

<자료> 우리나라 A, B 지역 (가)~(다) 제도 수혜자 비율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9.6	9.8	10.2	9.4	9.6
(나)	1.6	2.0	1.8	2.8	2.0	2.2
(다)	1.2	1.6	1.4	1.2	1.6	1.5

*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함.

**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수}}{\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인구}} \times 100$

수혜자의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나)						
(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변형 해설

- (1) 첫 번째 단서에 따라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므로 B 지역의 총인구도 2,000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수혜자의 수를 각각 구하기 위해서는 A 지역과 B 지역에서 각각 남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알아야 한다.
- (3) 이는 ‘남녀의 비율이 각각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 A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 비율로부터 남녀의 비율이 각각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으므로 남녀의 인구(가중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A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전체 +0.2)	9.6 (전체 -0.2)	9.8
(나)	1.6	2.0	1.8
(다)	1.2	1.6	1.4

- B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 비율로부터 남자의 비율과 떨어져 있는 정도가 여자의 비율과 떨어져 있는 정도의 3배이므로 여자의 인구가 남자의 인구의 3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인구가 남자의 인구보다 많으므로 평균이 여자의 비율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단위 : %)

구분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2 (전체 +0.6)	9.4 (전체 -0.2)	9.6
(나)	2.8	2.0	2.2
(다)	1.2	1.6	1.5

	A 지역	B 지역
남 : 여 비율 (%)	1 : 1	1 : 3
남 : 여 총인구 (명)	1000 : 1000	500 : 1500

(단위 : %)

구분	A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전체 +0.2)	9.6 (전체 -0.2)	9.8
(나)	1.6	2.0	1.8
(다)	1.2	1.6	1.4

(단위 : %)

구분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2 (전체 +0.6)	9.4 (전체 -0.2)	9.6
(나)	2.8	2.0	2.2
(다)	1.2	1.6	1.5

	A 지역	B 지역
남 : 여 비율 (%)	1 : 1	1 : 3
남 : 여 총인구 (명)	1000 : 1000	500 : 1500

- 위의 세 가지 표를 가지고 각 제도 수혜자 수를 구해보자.
- ㉠ B 지역의 (나) 제도 남성 수혜자 수, ㉡ B 지역의 (나) 제도 여성 수혜자 수, ㉢ B 지역의 (나) 제도 전체 수혜자 수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의 경우에는 B 지역의 남성 인구가 500명이고 수혜자 비율이 2.8%이므로 두 수를 곱해($500 \times 2.8\% = 14$) 구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B 지역의 여성 인구가 1500명이고 수혜자 비율이 2.0%이므로 두 수를 곱해($1500 \times 2.0\% = 30$) 구할 수 있다. ㉢은 ㉠과 ㉡의 합이므로 44명이다.
- ㉢의 값이 44인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B 지역의 총인구는 2000명이고, B 지역의 (나) 제도 전체 수혜자 비율은 2.2%이므로 두 수를 곱해($2000 \times 2.2\% = 44$) 구할 수 있다.

수혜자의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96	196	51	141	192
(나)	16	20	36	㉠ 14	㉡ 30	㉢ 44
(다)	12	16	28	6	24	30



01

[정답과 해설 127page]

x, y 에 들어갈 비율을 구하여라. (단, 전체 인구는 도시 인가와 농촌 인구로만 구성되며 도시 인가와 농촌 인구의 비는 3 : 2이다.)

	(가) 제도 수급자 비율 (%)	(나) 제도 수급자 비율 (%)
전체 인구	7.5	10.0
도시 인구	4.5	8.0
농촌 인구	x	y

02

[정답과 해설 127page]

갑국에서 B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가 37명이라고 할 때, A 지역의 인가와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를 구하여라. (단,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 (%)
A 지역	3.4
B 지역	7.4
전체	4.2

A 지역의 인구	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명

인구 부양비 유형은 과거에 한 번 출제되고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21학년도 평가원, 수능에서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문제에 주로 등장하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1) **유소년 인구** : 0~14세 인구, **부양 인구** : 15~64세 인구, **노인(노령) 인구** : 65세 이상 인구

(2)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frac{\text{노인(노령)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인(노령)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3)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노령)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4)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에서 노인(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 사회 : 전체 인구에서 노인(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 : 전체 인구에서 노인(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다음으로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통해 각 인구를 구하는 원리를 이해해 보자.

Q. 다음 표를 보고,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각각 구해보자.

부양 인구(명)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100	60	5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text{노인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부양 인구는 100명이고, 총부양비는 60이므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60명이다.

- 노령화 지수는 50이므로 계산을 통해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각각 구할 수 있다.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노령화 지수가 50이므로
 유소년 인구가 $2x$ 라면, 노인 인구는 x 이다.
 $\Rightarrow 2x + x = 60, 3x = 60$
 $\Rightarrow x = 20$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Rightarrow x + y = 60, \frac{y}{x} \times 100 = 50$
 $\Rightarrow x + y = 60, y = 0.5x$
 $\Rightarrow 1.5x = 60$
 $\Rightarrow x = 40, y = 20$

- 둘 중 본인이 편한 풀이 방식대로 풀면 된다.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1)

다음 자료를 보고 제시된 모든 연도의 인구를 표에 채워 넣고,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단,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 인구는 100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총부양비	70	64	56
노령화 지수	40	60	10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총인구			

- ① t년은 고령화 사회, t+30년은 고령 사회, t+6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 ②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t+30년이 가장 낮다. ()
- ③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보다 작다. ()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1) 해설 / 정답 : ×, ×, ○

(1)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부양 인구가 100명이므로, 각 연도의 유소년 인가와 노령 인구를 구해보자.

① t년(총부양비 70, 노령화 지수 40)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유소년 인구가 $5x$ 라면, 노인 인구는 $2x$ 이다.
 ⇒ $5x + 2x = 70, 7x = 70$
 ⇒ $x = 10$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 $x + y = 70, y = 0.4x$
 ⇒ $1.4x = 70$
 ⇒ $x = 50, y = 20$

② t+30년(총부양비 64, 노령화 지수 60)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유소년 인구가 $5x$ 라면, 노인 인구는 $3x$ 이다.
 ⇒ $5x + 3x = 64, 8x = 64$
 ⇒ $x = 8$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 $x + y = 64, y = 0.6x$
 ⇒ $1.6x = 64$
 ⇒ $x = 40, y = 24$

③ t+60년(총부양비 56, 노령화 지수 100)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유소년 인구가 x 라면, 노인 인구는 x 이다.
 ⇒ $x + x = 56, 2x = 56$
 ⇒ $x = 28$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 $x + y = 56, y = x$
 ⇒ $2x = 56$
 ⇒ $x = 28, y = 28$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20	24	28
부양 인구	100	100	100
유소년 인구	50	40	28
총인구	170	164	156

⇒ 앞으로 부양 인구를 기준으로 한 문제에서 노인(노령) 인가와 유소년 인구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20	24	28
부양 인구	100	100	100
유소년 인구	50	40	28
총인구	170	164	156

① t년은 고령화 사회, t+30년은 고령 사회, t+6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은 약 11.8%($20/170 \times 100\%$) t+30년은 약 14.6%($24/164 \times 100\%$), t+60년은 약 17.9%($28/156 \times 100\%$)이다. 따라서 t년은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고, t+30년과 t+60년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②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t+30년이 가장 낮다. (×)

→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은 $50/170 \times 100\%$, t+30년은 $40/164 \times 100\%$, t+60년은 $28/156 \times 100\%$ 이다. 세 비율의 대소 비교만 하면 되므로 각각의 비율을 엄밀히 구할 필요는 없다.

→ $50/170$ 은 $1/4$ 보다 크고, $40/164$ 는 $1/4$ 보다 작으므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크다. 또한, $40/164$ 는 $1/5$ 보다 크고, $28/156$ 은 $1/5$ 보다 작으므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30년이 t+60년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t+60년이 가장 낮다.

→ 이와 같이 비율의 대소를 비교할 때, 분수를 활용한 어렵셈으로 비교하는 것은 꽤 효율적인 방법이다.

③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보다 작다. (○)

→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28/40$ 이고,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28/24$ 이다. 비율 파트에서 배웠듯이, 분자가 같은 경우 분모가 더 큰 쪽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보다 작다.

⇒ 비율과 변화율 파트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큰 쪽의 비율이 더 높고,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큰 쪽의 비율이 더 낮다.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

다음 자료를 보고 제시된 모든 연도의 인구를 다음 표에 채워 넣어라. (단, 제시된 모든 연도의 유소년 인구는 100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총부양비	50	80	40
노령화 지수	40	60	10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총인구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 해설

(1)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므로, 각 연도의 부양 인구나 노령 인구를 구해보자.

① t년(총부양비 50, 노령화 지수 40)

- t년의 노령화 지수가 40이므로 t년의 노령 인구는 40명이다. t년에 유소년 인구나 노령 인구의 합이 140명이고, 총부양비는 50이므로 t년에 유소년 인구나 노령 인구의 합(140명)은 부양 인구의 50%이다. t년의 부양 인구의 절반이 140명이므로 t년의 부양 인구는 $140 \times 2 = 280$ 명이다.

② t+30년(총부양비 80, 노령화 지수 60)

- t+30년의 노령화 지수가 60이므로 t+30년의 노령 인구는 60명이다. t+30년에 유소년 인구나 노령 인구의 합이 160명이고, 총부양비는 80이므로 t+30년에 유소년 인구나 노령 인구의 합(160명)은 부양 인구의 80%이다. t+30년의 부양 인구의 80%가 160명이므로 t+30년의 부양 인구는 200명이다.

③ t+60년(총부양비 40, 노령화 지수 100)

- t+60년의 노령화 지수가 100이므로 t+60년의 노령 인구는 100명이다. t+60년에 유소년 인구나 노령 인구의 합이 200명이고, 총부양비는 40이므로 t+60년에 유소년 인구나 노령 인구의 합(200명)은 부양 인구의 40%이다. t+60년의 부양 인구의 40%가 200명이므로 t+60년의 부양 인구는 500명이다.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40	60	100
부양 인구	280	200	500
유소년 인구	100	100	100
총인구	420	360	700

※ 부양 인구가 기준인 문제는 '총부양비 \Rightarrow 노령화 지수' 순서로 계산하여 유소년 인구나 노인(노령) 인구를 구하고, 노인(노령) 인구나 유소년 인구가 기준인 문제는 '노령화 지수 \Rightarrow 총부양비' 순서로 계산하여 마지막에 부양 인구를 구하면 된다.

※ 유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노인(노령) 인구를 구할 때는 유소년 인구에 노령화 지수를 곱하면 되므로, 노인(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유소년 인구를 구할 때는 노인(노령) 인구에 노령화 지수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령화 지수	25	40	50	60
총부양비	20	25	50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t년에 갑국에서 부양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25명이다.
- ② t+20년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을국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③ t년과 달리 t+20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 ④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⑤ t년과 t+20년 모두 부양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총 부양 비용은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해설 / 답 : ②

(1) 유소년 인구에 관한 단서가 주어졌으므로 유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조건만 주었으므로 t년에 갑국,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t+20년에 갑국, 을국의 유소년 인구를 각각 다른 수로 두어야 한다.

(2)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a, t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b, t+20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c, t+2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d로 가정하자. 이때, 조건에 의하면 b는 d보다 더 크다. 계산 과정은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 풀이-(2)'와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할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인 인구	25a	40b	50c	60d
부양 인구	625a	560b	300c	160d
유소년 인구	100a	100b	100c	100d
총인구	750a	700b	450c	320d

〈선지 판단〉

- ① t년에 갑국에서 부양 인구 625명당 노인 인구는 25명이다. t년에 갑국의 유소년 100명당 노인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가 25이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 위해 이러한 선지를 낸 것이다.
- ②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20년에 갑국은 약 11.1%($50/450 \times 100\%$)이고, 을국은 18.75%($60/320 \times 100\%$)이다. 따라서 t+20년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을국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7배에서 14배 사이면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5배에서 7배 사이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5배보다 작으면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는 점을 활용하면 신속한 선지 판별이 가능하다. 단,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7배나 14배 근처에 있는 값이라면, 다른 선지를 우선 판단하고 엄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다.
- ③ 을국의 경우 t년과 t+20년 모두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작으므로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다.
- ④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 증가율 $[(60d - 40b/40b) \times 100\% = (150d - 100b/100b) \times 100\%]$ 은 유소년 인구 증가율 $[(100d - 100b/100b) \times 100\%]$ 보다 크다.
- ⑤ t년과 t+20년 모두 을국이 갑국보다 총부양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비용에 해당하는 총 부양 비용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갑국과 을국의 1인당 부양 비용이 동일하다는 단서도 없으며, 설령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갑국과 을국의 인구비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두 국가의 총 부양 비용은 비교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관련 통계이다.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며, t+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합계 출산율(명)	4.4	2.4	3.1	1.1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	60	30	50	20
노령화 지수	25	50	20	125

* 합계 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0~14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t+80년이 t년보다 크다.
- ②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합계 출산율 감소이다.
- ③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④ t년과 t+80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였다.
- ⑤ t년 대비 t+80년의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0~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이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해설 / 답 : ④

(1) 갑국과 을국의 각 시기에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모두 주어졌으므로 제시된 모든 시기의 15~64세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모두 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60×0.25)	15(=30×0.5)	10(=50×0.2)	25(=20×1.25)
15~64세 인구 비율	25	55	40	55
0~14세 인구 비율	60	30	50	20

(2)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며, t+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으므로 갑국과 을국의 각 시기에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각각 구할 수 있다. t년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를 편의상 100명으로 가정하자.

(단위 : 명)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65세 이상 인구	15	30	10	50
15~64세 인구	25	110	40	110
0~14세 인구	60	60	50	40
총인구	100	200	100	200

〈선지 판단〉

- ①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가 t년은 15/25이고, t+80년은 15/55(=30/110)이다. 분자가 같을 때 분모의 수가 큰 것이 더 작은 수이므로,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t년이 t+80년보다 크다.
- ②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80년에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였고(3.1→1.1), 합계 출산율의 감소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이 갑국은 30/55(=60/110)이고, 을국은 20/55(=40/110)이다. 분모가 같을 때 분자의 수가 큰 것이 더 큰 수이므로,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갑국은 t년과 t+80년 모두 15%이고, 을국은 t년에 10%에서 t+80년에 25%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t년과 t+80년을 비교했을 때 갑국은 모두 고령 사회지만, 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였다.
- ⑤ 갑국은 t년 대비 t+80년의 0~14세 인구에 변동이 없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갑국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을 0~14세 인구 감소가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을국은 t년 대비 t+80년의 0~14세 인구 감소율보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크다. 따라서, 0~14세 인구 감소보다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노령화 지수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을국에서는 0~14세 인구 감소가 을국의 노령화 지수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 문제 유형이며, 20학년도 수능부터 21학년도 수능까지는 4번 연속으로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능에서 이 유형의 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했던 가중평균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한 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제도의 사례를 보고 어떤 사회 보장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 사회 보장 제도의 사례를 눈에 익힐 필요가 있다. 기출에 주로 등장한 사회 보장 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출에 주로 등장한 사회 보장 제도의 사례〉

1. 사회 보험

- (1) 국민연금 :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2. 공공 부조

- (1) 기초 연금 :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3. 사회 서비스

-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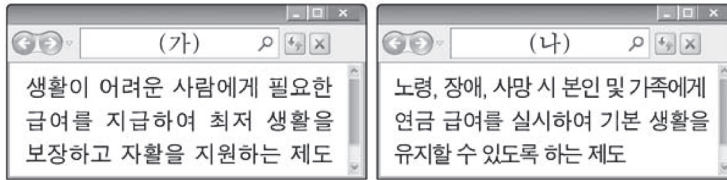
1.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

20학년도 수능 15번 변형

다음 자료를 보고 제시된 모든 시기의 수급자 수를 표에 채워 넣고,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단, (가), (나) 이외의 다른 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자료 1〉은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나)를 검색한 결과이고, 〈자료 2〉는 해당 제도의 ○○시 지역·시기별 수급자 비율이다.

〈자료 1〉 (가), (나)의 검색 결과



〈자료 2〉 ○○시의 지역·시기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가)		(나)	
	t년	t+10년	t년	t+10년
A 지역	4.8	5.0	3.4	4.0
B 지역	2.8	3.6	7.4	8.0
전체	4.4	4.3	4.2	6.0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시에는 A, B 지역만 있고, t년과 t+10년의 ○○시 총인구는 10,000명으로 동일함.

〈제시된 모든 시기의 수급자 수를 표에 채워 넣기〉

(단위 : 명)

구분	(가)		(나)	
	t년	t+10년	t년	t+10년
A 지역				
B 지역				
전체				

- 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t년에 A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의 4배이다. ()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t년은 t+10년과 달리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다. ()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t년보다 t+10년이 작다. ()
- ④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10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보다 작다. ()



20학년도 수능 15번 변형 해설 / 정답 : ×, ○, ×, ×

(1) (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사례로 이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고, (나)는 국민연금의 사례로 이는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2)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 2>를 통해 t년과 t+10년에 각각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 비를 알아내야 한다. 앞에서 배운 가중평균을 활용해 t년과 t+10년에 각각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 비를 알아보자.

(3) 가중평균을 활용해 (가) 제도의 t년과 t+10년에 각각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 비를 구해보자.

→ t년의 경우 A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전체 수급자 비율과 0.4%p가 차이 나고, B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전체 수급자 비율과 1.6%p가 차이 난다. 전체 수급자 비율은 총인구가 더 많은 지역의 수급자 비율과 더 가까이 있으므로 t년에 A 지역의 총인구가 B 지역의 총인구의 4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t+10년의 경우 A 지역의 수급자 비율도 전체 수급자 비율과 0.7%p가 차이 나고, B 지역의 수급자 비율도 전체 수급자 비율과 0.7%p가 차이 난다. 두 지역 각각의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의 차이가 동일하므로 t+10년에 A 지역의 총인구와 B 지역의 총인구는 같음을 알 수 있다.

→ 같은 시기에 조사한 자료이므로 (나) 제도의 경우를 계산해 봐도 동일한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 비가 나올 것이다. 꼭 계산을 해보길 바란다.

(4) t년과 t+10년에 ○○시 총인구는 10,000명으로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풀이 3번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t년과 t+10년에 각각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를 구해보자.

(단위 : 명)

구분	t년	t+10년
A 지역	8,000	5,000
B 지역	2,000	5,000
전체	10,000	10,000

(5) <자료 2>와 풀이 4번의 계산 결과를 종합하면 ○○시의 지역·시기별 수급자 수를 구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가)		(나)	
	t년	t+10년	t년	t+10년
A 지역	384	250	272	200
B 지역	56	180	148	400
전체	440	430	420	600

〈선지 판단〉

〈〇〇시의 지역·시기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공공 부조		사회 보험	
	t년	t+10년	t년	t+10년
A 지역	4.8	5.0	3.4	4.0
B 지역	2.8	3.6	7.4	8.0
전체	4.4	4.3	4.2	6.0

〈〇〇시의 지역·시기별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공공 부조		사회 보험	
	t년	t+10년	t년	t+10년
A 지역	384	250	272	200
B 지역	56	180	148	400
전체	440	430	420	600

- 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경우, t년에 A 지역 수급자 수는 384명이고, B 지역 수급자 수는 56명이다. t년에 A 지역 수급자 수는 t년에 B 지역 수급자 수의 4배가 아니다. (×)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의 경우, t년은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고, t+10년은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B 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다. (○)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의 경우, t년의 B 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1/2보다 작고, t+10년의 B 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1/2이므로 t+10년보다 t년이 작다. (×)
- ④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사회 보험이고,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124명이고, 공공 부조의 t+10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70명이므로 전자가 더 크다. (×)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 (나) 제도 중에서,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 (나)는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이다. 갑국은 A, B, 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B 지역 전체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	3	4	7	4
(나)	25	55	75	48

$$* \text{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상호 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②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수는 C 지역 수급자 수의 3배 이상이다.
- ③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C 지역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 수의 합이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해설 / 정답 : ②

(1)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 (나) 제도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가)는 공공 부조이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나)는 사회 보험이다.

(2) 단서에서 B 지역 전체 인구는 각각 A 지역 전체 인구의 2배라고 했으므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들의 인구비를 알아야 하므로 가중평균을 활용하면 된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풀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 첫 번째는 미지수를 사용하는 풀이다. 단서에서 B 지역 전체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라고 했으므로 A 지역 인구 : B 지역 인구 = 1 : 2이다. 단서에서 C 지역 인구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A 지역 인구를 1이라고 했을 때, C 지역 전체 인구를 미지수 x 로 두면 A 지역 인구 : B 지역 인구 : C 지역 인구 = 1 : 2 : x 이다.

A 지역 인구	B 지역 인구	C 지역 인구	갑국 전체 인구
1	2	x	$3+x$

(가) 제도에 각 지역 전체 인구의 가중치에 수급자 비율을 곱해주면 x 를 구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인구라는 가중치에 수급자 비율을 곱한 비율을 모두 더하면 갑국의 전체 인구라는 가중치에 전체 수급자 비율을 곱한 값과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begin{aligned} \rightarrow & (1 \times 0.03) + (2 \times 0.04) + (x \times 0.07) = (3+x) \times 0.04 \\ \rightarrow & 0.11 + 0.07x = 0.12 + 0.04x \\ \rightarrow & 0.03x = 0.01 \\ \rightarrow & x = 1/3 \end{aligned}$$

계산의 편의를 위해 C 지역 인구를 100명으로 두도록 하자.

(단위 : 명)

A 지역 인구	B 지역 인구	C 지역 인구	갑국 전체 인구
300	600	100	1,000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	9	24	7	40
(나)	75	330	75	480

→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푸는 풀이이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갑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	3	4	7	4

→ 이 표를 보면 B 지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에서 갑국의 각 지역의 인구비를 구하기 위해서 B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풀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 \times 0.03) + (2 \times 0.04) + (x \times 0.07) = (3 + x) \times 0.04$ 에서 좌변의 2에 곱해진 0.04와 우변의 $3 + x$ 에 곱해진 0.04는 같은 수급자 비율을 의미하므로 양변에 (2×0.04) 는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 B 지역의 수급자 비율과 갑국 전체의 수급자 비율이 같으므로 갑국에 A 지역과 C 지역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 지역과 C 지역의 인구비를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A 지역	C 지역	전체
(가)	3	7	4

→ A 지역의 (가) 수급자 비율이 갑국 전체의 (가) 수급자 비율과 1%p만큼 차이가 나고, C 지역의 (가) 수급자 비율이 갑국 전체의 (가) 수급자 비율과 3%p만큼 차이가 나므로 A 지역의 총인구가 C 지역의 총인구의 3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풀이는 풀이 1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 연습할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 모두 이해하고 체화하길 바란다. 현장에서 이 문제를 보았다면 두 번째 풀이처럼 푸는 것보다 첫 번째 풀이처럼 푸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이지만, 이미 출제된 유형이기에 두 가지 풀이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갑국의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공공 부조	9	24	7	40
사회 보험	75	330	75	480

* 계산의 편의를 위해 C 지역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두도록 하자.

〈선지 판단〉

- ① 상호 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75명이고, B 지역 수급자 수는 330명이다. 따라서 B 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다.
- ②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수는 24명이고, C 지역 수급자 수는 7명이므로 B 지역 수급자 수는 C 지역 수급자 수의 3배 이상이다.
- ③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의 경우, C 지역 수급자 수도 75명이고, A 지역 수급자 수도 75명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 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총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경우,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 수의 합은 16명이고, B 지역 수급자 수는 24명이다. 따라서 B 지역 수급자 수가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 수의 합보다 많다.
- 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고,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공공 부조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40명이고, 사회 보험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75명이므로 사회 보험의 A 지역 수급자 수가 공공 부조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보다 더 많다.

⇒ 중요한 기출 유형이므로 해당 유형 연습을 위해 21학년도 수능 15번도 함께 풀어보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가)	4	3	7	7	5
(나)	20	10	30	40	24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갑국은 A~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지역 인구의 0.5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D 지역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C 지역 수급자 수의 1.5배이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A와 B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C와 D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와 동일하다.
- ④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의 2.5배이다.
- ⑤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C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21학년도 수능 15번 해설 / 정답 : ④

(1) (가)는 기초 연금의 사례로 이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고, (나)는 국민연금의 사례로 이는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2) ** 단서에서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라고 했으므로 인구비를 활용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중평균을 활용하면 된다. 앞에서 설명했던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적용해보자.

→ 첫 번째는 미지수를 사용하는 풀이다. 단서에서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라고 했으므로 A 지역 인구 : B 지역 인구 : D 지역 인구 = 2 : 1 : 1이다. 단서에서 C 지역 전체 인구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A 지역 전체 인구를 2라고 했을 때, C 지역 전체 인구를 미지수 x 로 두면 A 지역 인구 : B 지역 인구 : C 지역 인구 : D 지역 인구 = 2 : 1 : x : 1이다.

A 지역 인구	B 지역 인구	C 지역 인구	D 지역 인구	갑국 전체 인구
2	1	x	1	$4+x$

→ (가) 제도에 각 지역 전체 인구의 가중치에 수급자 비율을 곱해주면 x 를 구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인구라는 가중치에 수급자 비율을 곱한 비율을 모두 더하면 갑국의 전체 인구라는 가중치에 전체 수급자 비율을 곱한 값과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rightarrow (2 \times 0.04) + (1 \times 0.03) + (x \times 0.07) + (1 \times 0.07) = (4 + x) \times 0.05$$

$$\rightarrow 0.18 + 0.07x = 0.2 + 0.05x$$

$$\rightarrow 0.02x = 0.02$$

$$\rightarrow x = 1$$

→ 계산의 편의를 위해 A 지역 전체 인구를 200명으로 두도록 하자.

(단위 : 명)

A 지역 인구	B 지역 인구	C 지역 인구	D 지역 인구	갑국 전체 인구
200	100	100	100	500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가)	8	3	7	7	25
(나)	40	10	30	40	120

→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푸는 풀이이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갑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가)	4	3	7	7	5

* 갑국은 A~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지역 인구의 0.5배임.

→ 이 표에서 갑국 전체의 수급자 비율과 같은 비율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주를 보면 B 지역과 D 지역의 인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을 하나로 합치면 두 지역 수급자 비율의 평균인 5%가 나온다.

〈갑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C 지역	B 지역 + D 지역	전체
(가)	4	7	5	5

* 갑국은 A~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지역 인구의 0.5배임.

→ B 지역과 D 지역을 하나로 묶으면, 갑국 전체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과 같은 수급자 비율이 나오므로 B 지역과 D 지역을 하나로 묶는다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풀이를 참고하여 이 원리를 수식으로 증명해보길 바란다.

(단위 : %)

구분	A 지역	C 지역	전체
(가)	4	7	5

→ A 지역의 (가) 수급자 비율이 갑국 전체의 (가) 수급자 비율과 1%p만큼 차이가 나고, C 지역의 (가) 수급자 비율이 갑국 전체의 (가) 수급자 비율과 2%p만큼 차이가 나므로 A 지역의 총인구가 C 지역의 총인구의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풀이는 풀이 1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갑국의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공공 부조	8	3	7	7	25
사회 보험	40	10	30	40	120

* 계산의 편의를 위해 A 지역 전체 인구를 200명으로 두도록 하자.

(단위 : 명)

A 지역 인구	B 지역 인구	C 지역 인구	D 지역 인구	갑국 전체 인구
200	100	100	100	500

〈선지 판단〉

- 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경우, D 지역 수급자 수는 7명이고, A 지역 수급자 수는 8명이다. 따라서 A 지역 수급자 수가 D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40명이고, C 지역 수급자 수는 30명이다. 따라서 A 지역 수급자 수는 C 지역 수급자 수의 1.5배가 아니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의 경우, A와 B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30명이고, C와 D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10명이다. 따라서 둘의 차이는 다르다.
- ④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고,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공공 부조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25명이고, 사회 보험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10명이다. 따라서 공공 부조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사회 보험의 B 지역 수급자 수의 2.5배이다.
- ⑤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가 C 지역은 30/7이고, B 지역은 10/3이다. 따라서 C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2. 벤 다이어그램 문제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에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표 문제를 푸는 신유형이 나왔다.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유형 A~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가), (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10	2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6	9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5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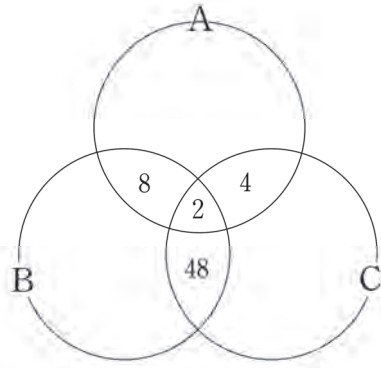
*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2%)이,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 ② B는 A, C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C는 A, B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 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나) 지역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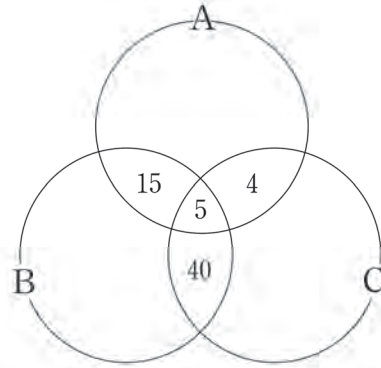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 정답 : ㉔

사회 보험, 공공 부조는 사회 서비스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B는 사회 서비스이다. 사회 보험은 공공 부조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C는 사회 보험, A는 공공 부조이다.

(단위 : %)



(가) 지역



(나) 지역

〈선지 분석〉

- ①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지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A)가 아니라 사회 보험(C)이다. 공공 부조(A)는 사후 처방적 목적을 가진다.
- ②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C)이다.
- ③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제도는 공공 부조(A)이다. 사회 보험(C)은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회 서비스(B)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한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회 보험(C)과 사회 서비스(B)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A)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에서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을 뺀 것과 같다. 따라서,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지역 48%(50-2), (나) 지역 40%(45-5)이다. 따라서,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다.
- ⑤ 사회 보험(C)과 공공 부조(A)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B)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에서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을 뺀 것과 같다. 따라서,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지역 4%(6-2), (나) 지역 4%(9-5)이다. 따라서,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나) 지역이 같다.

◆ 벤 다이어그램 문제에 대한 고찰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형태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다. 22학년도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언제든지 응용되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 유형을 깊게 다루려고 한다.

사회 보장 제도 한 가지의 혜택을 받는 가구를 한 개의 수혜 가구, 사회 보장 제도 두 가지의 혜택을 받는 가구를 두 개의 수혜 가구, 사회 보장 제도 세 가지의 혜택을 받는 가구를 세 개의 수혜 가구라고 하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유형 A~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가), (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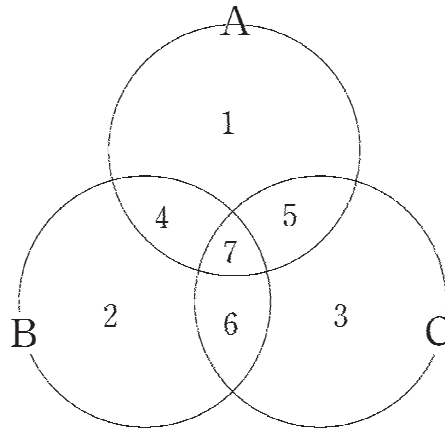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10	2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6	9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50	45

*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2%)이,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2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에서는 두 개의 수혜 가구와 세 개의 수혜 가구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의 혜택만을 받는 가구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의 수혜 가구 비율에서 세 개의 수혜 가구 비율을 빼면 두 가지의 혜택만을 받는 가구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만약 문제에서 한 개의 수혜 가구와 두 개의 수혜 가구에 관한 정보만을 주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모든 가구가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위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자.

- A 제도 수혜 가구의 비율은 $1+4+5+7$
- B 제도 수혜 가구의 비율은 $2+4+6+7$
- C 제도 수혜 가구의 비율은 $3+5+6+7$

- A와 B 제도 수혜 가구의 중복 수혜 비율은 $4+7$
- A와 C 제도 수혜 가구의 중복 수혜 비율은 $5+7$
- B와 C 제도 수혜 가구의 중복 수혜 비율은 $6+7$

A, B, C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비율은 7이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수혜 가구는 세 개의 수혜 가구를 포함하게 되고, 한 개의 수혜 가구는 두 개의 수혜 가구와 세 개의 수혜 가구를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만약 문제에서 한 개의 수혜 가구 비율과 두 개의 수혜 가구 비율만을 준다면, 세 개의 혜택을 모두 받는 가구 비율을 미지수 x 나 y 로 두고 풀면 된다.

아래의 연습문제를 풀어보자.

연습문제

다음 표를 보고, (가) 지역의 A, B, C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가구의 비율을 x , (나) 지역의 A, B, C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가구의 비율을 y 로 두고 벤 다이어그램에 수혜 가구 비율을 표시하시오. (단,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 제도의 수혜 가구	50	45
B 제도의 수혜 가구	40	50
C 제도의 수혜 가구	3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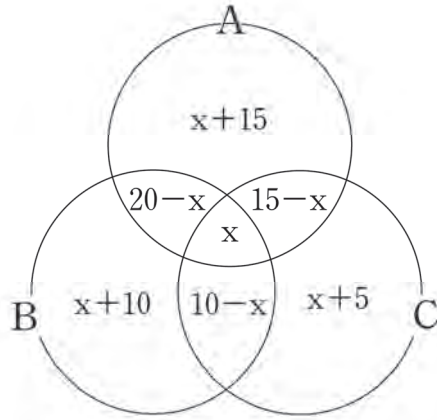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20	3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15	20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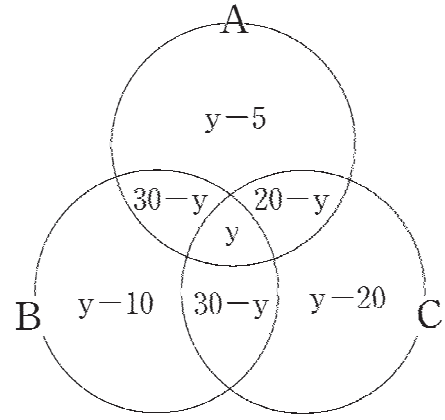


(정답)

(가) 지역



(나) 지역



비율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x 와 y 의 범위를 각각 구해 보자.

x 는 0 이상, 10 이하의 값($0 \leq x \leq 10$)을 가진다. $10-x$ 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y 는 20 이상, 20 이하의 값($20 \leq y \leq 20$)을 가짐을 알 수 있다. $y-20$ 과 $20-y$ 모두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y 는 20으로 확정된다.

여기에서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인구비가 주어진다면, 인구수를 비교하는 선지도 출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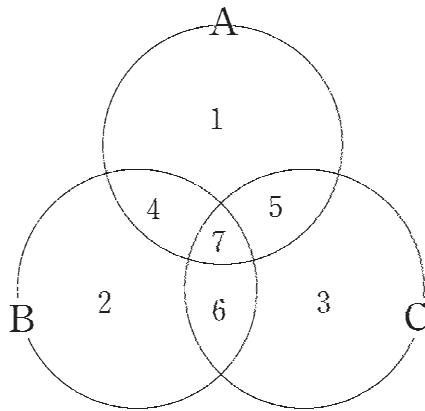
만약 문제에서 한 개의 수혜 가구와 세 개의 수혜 가구에 관한 정보만을 주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예시)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 제도의 수혜 가구	60	55
B 제도의 수혜 가구	45	40
C 제도의 수혜 가구	30	50

*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10%)이,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각 제도의 수혜 가구 비율을 모두 더하면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은 두 번 더해지고, 7에 해당하는 비율은 세 번 더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제도의 수혜 가구 비율을 모두 더한 것에서 100%를 빼면, 4, 5, 6은 하나씩 남고, 7은 두 번 남는다. 7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4, 5, 6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가) 지역의 경우, 각 제도의 수혜 가구 비율을 모두 더하면 135%이다. 여기서 100%를 빼고, 7에 해당하는 비율 10%를 두 번 빼면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 15%가 도출된다.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과 7에 해당하는 비율을 알기 때문에 100%에서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과 7에 해당하는 비율을 빼주면 1, 2, 3의 합은 75%임을 알 수 있다.

(나) 지역의 경우, 각 제도의 수혜 가구 비율을 모두 더하면 145%이다. 여기서 100%를 빼고, 7에 해당하는 비율 5%를 두 번 빼면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 35%가 도출된다.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과 7에 해당하는 비율을 알기 때문에 100%에서 4, 5, 6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과 7에 해당하는 비율을 빼주면 1, 2, 3의 합은 60%임을 알 수 있다.